Weekly
공감
2009 05.13 No.11(통권 112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르포 '국민건강 파수꾼' 인천공항 검역관 24시
"인플루엔자A? 숨어들 틈 없어요"

15년 만의 주공·토공 통합, 시너지 효과 활활!

세계 미술계의 스필버그, 독립큐레이터 이원일

출산율 1.19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부터
경인 아라뱃길
Gyeong-in Waterway
시대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새로운 물길!
경인 아라뱃길은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만이 아닙니다.
우리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물길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새 이름으로 결정된 '경인 아라뱃길' 로 불러주십시오.
'아라' 는 아리랑의 후렴구에서 따온 말로, 경인 아라뱃길은
21세기 녹색성장의 꿈을 품고 서해와 아리수(한강의 옛이름)를 잇는
글로벌 명품 뱃길을 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
K water

'아이 기르기' 돈 들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시 회복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2008년에 1.19명으로 하락한 것이다. 출산율에는 소득수준, 보육 및 교육 비용, 사회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 건강, 개인 취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각 변수의 중요도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적정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해결의 열쇠를 쥔 당사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갖기'에 소극적이다. 이와 같이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이해관계가 사회나 국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 지원을 늘렸다.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족계획 시절의 유산을 정리하고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 영향으로 출산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다. 경제상황에 따라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 일이 시급해졌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태어나 학교에 다니는 동안 줄곧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학교 문을 나서면 다시 비좁은 취업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겨우 직장을 얻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약자와 패자도 최선을 다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심층 검토해 사회문화적 저출산 요인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권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즐거움이자 고통이다. 어려움은 덜어주고 즐거움을 크게 하려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방식이 제대로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보육시설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가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가구와 직접 자녀를 키우는 가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가 많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번창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G

Contents

Weekly_2009.05.13_No.11(통권 112호)



기획특집

더 낳아야 미래 있다

추락하는 출산율에 날개는 없는가.
저출산 · 고령화로 비상사태를 맞은
한국은 인구 급감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할
첫 번째 국가로 꼽히고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이제 단순히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호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젠 출산이 애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54



08



14

Weekly 공감

발행일 2009.5.1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668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한국의 녹색뉴딜은 친환경 경기부양책"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 〈Weekly 공감〉 9호(4월 29일자)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일본의 〈닛케이신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녹색뉴딜은 친환경 경기부양책'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독자가 최근 중국 언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인용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세계도 관심을 기울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lee2b2(황정길)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언론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랴오왕(瞭望)〉은 지난 5월 4일자에서 "녹색성장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3면에 걸쳐 우리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랴오왕〉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환경문제를 역설해 대통령에 당선됐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에도 실리는 등 '환경보호 대통령'으로 불렸다"면서 "대운하 계획은 각계의 반대로 유보됐지만 환경보호와 끊지 못할 인연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녹색소비자단체 출범 △녹색농산물 판매 급증 △초중학교 녹색발전 교육 △시냇물 복원사업 △자전거 활성화 등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추진 아래 국민들도 녹색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일간지 〈징지르바오(經濟日報)〉도 지난 2월 말 보도에서 녹색뉴딜 사업에 대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계획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한국만의 특징이 있다"면서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발전도 도모하면서 핵심 사업을 보증하고 일반 사업도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Weekly 공감〉 9호 기획특집 '노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읽고 보낸 격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많은 기사 가운데 '기획특집-노사의 아름다운 동행'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고통분담과 함께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_ 김휘곤

●● 〈Weekly 공감〉 10호(5월 6일자) 기획특집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가족' 중 표지에 나온 '1억 빚 털고 새 출발한 일식조리사 김윤상·하귀야 부부' 기사를 읽고 보내온 댓글을 소개합니다.

"다시 일어서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멋진 인생을 기대합니다." _ 세미예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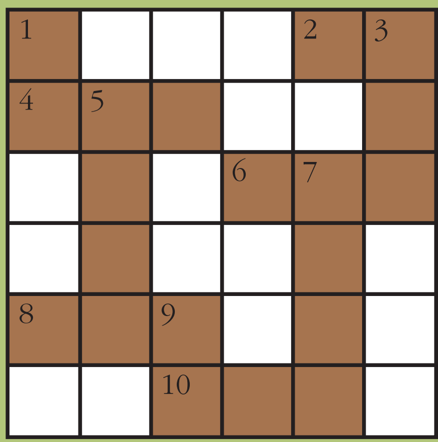


●● 최근 정부가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인기입니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Weekly 공감〉 11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자가 늘어나면 효용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독자가 쓴 댓글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담당자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라고 권합니다.

"요새 은행권 저금리로 고객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정부가 또 은행 살리려고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냈군요. 과연 정말 획기적인 것일까요.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텐데 말입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70퍼센트 이상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한 서민이 대부분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 중 판교지구 아파트와 같은 민간업체 분양에 도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서민들의 1순위는 주공이나 도개공이 짓는 아파트가 아닐까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맘 편히 장기적금이라 생각하고 큰 희망은 자제하시길…." _ tommyF

공감 퍼즐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5월 2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2.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번창하려면 적정OO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저출산 극복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4. 돌보아주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아기OOO, 노인OOO, 환자OOO 등 도우미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6. 쌍둥이보다 많은 셋 이상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죠.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장 등 어린이 2백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12자녀를 둔 OOO가족도 초청했습니다."
8. 시루떡인데, 흰색을 띠어 이런 이름이 붙었죠. 어린아이의 백일이나 돌잔치에도 쓰이죠. 백편, 설기라고도 하죠.
10.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방.

세 로

1.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 "이집 저집에서 사랑스런 아기들의 OO 잔치가 많이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3. 뱀이기는 하지만 왠지 우리와는 친근한 뱀이죠. "OOO 담 넘어가듯"
5.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집이나 시설.
7. 물체가 공중이나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의태어. "구름이 OOOO 떠다닌다."
9. 마음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등의 감정. "그는 오랜만에 OO이 좋아 가족과 외식했다."

〈Weekly 공감〉 9호(4월 29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3 마라톤 4 봉화군 5 터주 9 생동 10 홈퍼니
세로 1 노사화합 2 나라장터 6 주머니 7 상생 8 백홈

당첨자

김경수(경기 포천시 선단동)	김하영(서울 마포구 신수동)
박은철(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박태순(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현주(제주시 이도2동)	안진영(강원 원주시 명륜동)
이소영(경남 마산시 석전동)	이혜원(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장은주(인천 부평구 부평2동)	최영란(충남 천안시 신부동)

※ 많은 독자들이 응모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에는 10명의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주공+토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탄생

85㎡ 아파트 분양가 1천만원 낮춘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확정됐다. 이로써 자산 규모 1백7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초대형 공기업이 탄생한다.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총 34개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택지개발, 공공 임대주택,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택지개발을 본업으로 하는 토공과 주택건설을 본업으로 하는 주공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김형수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장은 “2007년 전체 매출액에서 택지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토공은 82퍼센트, 주공은 31퍼센트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는 양 공사가 무리한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펼친 탓이다. 경쟁적인 사업 확장은 결국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하는 데 한몫했다.

또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의 분리로 주택건설비가 상승했다. 상승분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자의 의도와 목적을 택지개발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없어 입체적인 도시개발이 어렵다는 점도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됐다.

15년 만에 통합 성공, 10월 1일 공사 출범

정부는 1993년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기능조정을 위해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엔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공의 민영화가 추진됐으며, 2001년과 2006년에도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양 기관 통합에 대해 토지공사 노조 등의 반대가 심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국 지난 4월 30일 토공·주공 통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5년간의 지루한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동아DB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중구난방식 도시개발사업을 막고 도시계획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택토지실장, 민간전문가 15명 등을 포함한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기능 조정, 조직 및 재무 통합, 사규 제정, 정관 작성 등의 통합 업무를 추진한다.

여기에 통합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설립사무국도 설치해 운영한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이 사무국장을 맡고 국토해양부, 주공, 토공 등에서 파견된 44명이 총 4개 팀(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통합공사는 오는 10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공사의 출현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주택가격 인하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의 수직화로 그간 따로 개발하며 낭비한 비용을 최소 4퍼센트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85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분양가를 1천만원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토공이 개발한 택지를 주공이 매입하고 분양하는 식이어서 분양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통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됐다. 한 기관에서 도시계획을 일원화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진행해오던 중구난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공사가 펼쳐오던 수주 경쟁도 사라져 경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약 7천3백여 명(주공 4천3백86명, 토공 2천9백82명)에 이르는 양 공사 임직원들을 감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와 지사 등 중복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 경영 효율화'가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먼저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다. 2011년 통합공사의 부채 규모는 1백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하루 이자만 1백40억원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채가 결국 국민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 공사 측은 단기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분양주택과 대지 등 재고자산의 장부가치가 주공 19조2천억원, 토공 28조8천억원 등 48조원에 달해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합공사의 본사 이전지 선정도 딜레마다. 참여정부 시절 토공은 전북 전주(완주), 주공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키로 결정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채 이번 국회에서도 통합공사의 본사 이전 도시를 결정하지 못했다. 통합공사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까지 판단이 유보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인원 구조조정도 난제다. 대규모 구조조정





동아DB

사업 중복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던 주공과 토공이 15년간의 논란 끝에 10월 1일 통합공사로 출범한다.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인 경기 용인의 파괴된 산림(위).

및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양 노조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이른 시일 안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통합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다.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조화 중에서 양 공사의 통합은 후자 쪽으로 가야 한다. 중복 사업부서의 통합, 유기적인 조직 구성, 조직 슬림화, 경영 정상화 등을 통해 화학적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양 기관의 합리적인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며 "통합이 공기업 선진화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단결해야 한다. 통합된 뒤의 설계도가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고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사업인 녹색뉴딜, 해외사업, 토지은행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사의 미래 역할이 계속 발전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장이 보는 통합공사의 미래상이다. G

글 · 황준호 아시아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우리 강산 젖줄, 4대강 살리기 총력"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미분양 아파트 등 주택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한국정책방송 KTV의 정책토론 현장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사업의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만성적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홍수, 가뭄 등 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천2백50억톤 정도인데 대부분 여름 한철 집중되어 있는 데다 27퍼센트만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 강에 충분한 물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물을 확보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도 방지하는 것이 곧 4대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만 12억5천만 톤이지요."

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과정에서 오수와 탁수가 하천에 흘러 들어간다거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문제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오·탁수 유입을 막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강 준설 작업을 할 때 진공 압축식 흡입장치로 물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을 통해 환경오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식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공사할 계획이 없으니 식수원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강 살리기가 경제 부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4대강 살리기에는 14조원 가량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일자리 19만 개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생겨난 돈은 결국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요.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는 비

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늘리고, 턴키 공사도 20퍼센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는 국지적 공사는 지역업체에게 위탁, 분리 발주함으로써 역시 지방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아라'란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지요. 애초 이 사업은 부천이나 김포 등 한강 상습 침수지역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서해로 흘려보내기 위한 방수로 건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4킬로미터인 이 방수로를 4킬로미터만 더 연장하면 한강으로 통하는 뱃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수로의 쓰임새를 넓히고 미관도 생각해서 사업을 확장한 것입니다.

뱃길의 규모를 볼 때 정부에서 기대하는 중국, 일본과의 연계 운송이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뱃길로는 4천 톤급의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큰 뱃길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경제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결정한 규모이지요. 지금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선박 중에도 4천 톤급이 적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강으로부터 중국까지 배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택 정책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지요. 정부의 주택공급가격 안정대책에 중심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지요. 최근 민간업자들이 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침체 탓도 있지만, 수많은 정부 규제 때문에 주택을 건설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규제를 효율적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전국에 43만 가구, 그중 수도권에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정책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존 주거복지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였다면 이번 정책은 좀 더 다양한 소득계층에 맞추어 주택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분할납부 주택, 전세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전의 주택공급 정책이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도심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명목만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규제를 풀어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점도 차이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이자 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 19만 개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생겨난 돈은 결국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요."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세금이나 규제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공사나 주택보증기금 등에서 사들였다가 경기가 회복됐을 때 재판매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택을 팔면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도 적극 활용 중이고요. 다만 실물경기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업계의 자구노력을 당부합니다. G

글 · 김정희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은 오는 6월 본공사에 들어가 2011년 완공된다.

다양한 친수공간·친환경 쉼터 조성 '경인아라뱃길'

한강, 마침내 바다를 만나러 떠나다

서해와 아리수(한강)를 이어 얼과 문화가 담긴 뱃길을 열기 위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한창이다. 공사 관계자들은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진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현장보고회가 5월 6일 인천 서구 서천동 경인아라뱃길 중앙전망대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강과 서해를 잇는 새로운 물길인 경인아래뱃길을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3개 광역단체장과 각계 주요인사, 지역 주민 등 4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은 현장보고회 경과보고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수향(水鄕)8경과 자전거전용도로, 녹지공간 등 다양한 친수공간과 친환경 쉼터를 조성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8백년 동안 민족의 염원이던 경인아라뱃길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 추진에 협조해준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에서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우리처럼 강이 잘 활용되지 않

고 3면이 바다인데도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터져야 할 게 막히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 남북 분단으로 한강이 막혀 있었는데 굴포천이 터지고 경인아라뱃길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며 "강이 바다로 터져서 사람과 상품, 역사 등 모든 게 흐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관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공사의 환경친화적인 추진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재생용지를 활용한 홍보 인쇄물을 제작하고 친환경 퍼포먼스를 여는 등 보고회 행사를 탄소중립인증 프로그램을 획득한 그린 이벤트(Green Event)로 추진했다.

경인아라뱃길 개설사업은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1992년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하는 방수로 건설공사를 계기로 출발했다가, 1995년 경인아라뱃길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던 중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본격화됐다. 지난 3월에는 방수로에서 한강까지의 연결구간에 대한 공사에 착공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조2천5백억원으로 터미널과 교량 등 주요공정은 올해 6월 착공해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뱃길이 이어지게 되면 물류체계가 개선돼 수도권 교통난이 완화되고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운송수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을 직접 배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서울이 국제항구도시로도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G

글 · 구자홍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경인아라뱃길 완공 뒤 모습을 담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민족의 얼과 문화가 흐르는 아라리 물길

"이제부터 '경인아라뱃길'이라 불러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1일 경인운하의 이름을 '경인아라뱃길'로 바꿨다. 새 명칭은 지난 3월 '경인운하 새 이름 지어주기 국민 공모'와 전문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아라'는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로,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흐르는 뱃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발음이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강의 옛 이름인 아리수를 연상하는 효과도 있어 서해와 한강을 잇는 뱃길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라'는 또한 바다를 이르는 옛말로도 알려져 있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인아라뱃길은 단순히 뱃길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할 명품 뱃길을 여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역사에 없던 새로운 뱃길을 제대로 만드는 첫걸음이라 새 이름을 짓게 됐다"고 명칭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세계가 함께하는 명품 뱃길, 경제와 환경과 미래를 포괄하는 부가가치 높은 글로벌 브랜드 뱃길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김병일 사무총장

바다가 대한민국을 부른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2050년 미래 바다와 인간의 만남'을 보여줄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를 통해 신녹색성장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2일로 정확히 3년 남았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세계박람회기구(BIE)로부터 개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행사 로드맵이 완성된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6일 여수사무소를 연 데 이어, 5월 7일엔 바다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5월 12일엔 '1백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가졌다. 개막 'D-1000일'인 8월 16일엔 대대적인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직위를 이끌고 있는 김병일 사무총장은 "세계박람회는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잘 활용해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8서울올림픽, 93대전세계박람회, 2002한일월드컵처럼 세계박람회를 국민을 단합시키고 희망과 비전을 주는 행사, 온 국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단장, 17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총장은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가운데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인화력으로 조직위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박람회장 건설공사와 참가국 유치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성공적 개최 여부가 금년 한 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 기조인 '녹색뉴딜'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장이 '2050년 미래 바다와 인간의 만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연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세계적인 해양연구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박람회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람회장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민간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99퍼센트 끝났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는 대형 바다전시장(Big-O · 큰 동그라미 형태) 및 박람회 전시시설 건축공사를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시관들은 전시 주제와 각각의 특성, 개최 후 활용도를 고려해 세계적 디자이너와 한국의 건축역량을 총동원해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위기 여파로 민자 유치가 무산됐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조직위가 직접 나서서 노력한 결과 호텔과 아쿠아리움 건설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제안이 있어 막판 협상 중입니다. 세계박람회장 주변 환경에 대한 민자 유치가 미흡하긴 한데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단지'의 경우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만성리에 계획 중인 리조트단지도 유럽 펀드사와 투자협약을 협상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투자 유치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여수세계박람회는 현 정부 임기 내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지원 의지는 정말 강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공개 석상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여러 번 약속했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여수에서 두 차례 열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함께 합심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도 13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조직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위원장 부재로 인해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휴일 비상근무 등으로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빨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숙고해서 적임자가 선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 실패한 박람회도 많았는데,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행사 규모와 참여 인원 등 이벤트로서의 성공 여부와 함께 개최 지역,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



정경택 기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국제해양대학원과 연구소가 들어서는 등 세계적인 해양연구·산업단지로 거듭나고, 레저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도록 해양 녹색경제의 비전을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 연안, 인류가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사무총장께서 생각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혁명이 자연을 이용해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었다면, 이젠 자연과 공존하며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찾는 것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 연안, 인류가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는 녹색성장동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국민건강 최일선 파수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

"전염병, 꼼짝마! 숨어들 틈 없어요"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은 사스, AI, 신종 인플루엔자A 등 각종 전염병이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검역관들은 대한민국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연합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60대 여성이 신종플루 추정환자로 진단된 가운데 5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공항검역소 직원들이 입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5월 4일 오후 5시 20분. 개미 한 마리 얼씬대지 않던 인천국제공항 XX번 탑승게이트 앞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장비를 손에 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더니 민첩하게 임시 검역대를 설치하고, 각자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이다.

잠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가 탑승게이트와 연결되자 검역관 4명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검역관 2명이 휴대용 체온측정 카메라로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으며 지나갔다. 한 승객의 얼굴이 카메라 모니터에 고온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나타나자 뒤따르던 검역관이 고막체온기로 체온검사를 했다.

기내 검역에서 3명의 여성에게서 체온이 섭씨 37.3도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세 여성은 정밀 검진을 위해 즉시 게이트 앞에 설치된 임시 검역대로 옮겨졌다. 게이트 주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열의 원인이 요즘 유행하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탓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순옥 검역관은 이들에게 몸 상태와 신종 인플루엔자A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다녀왔는지 등을 물은 뒤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기에 투여했다. 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을 살피는 신속항원검사(RAT)인데, 10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승객들은 기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양성반응이 나오면 환자를 격리시설로 옮기고, 환자를 중심으로 앞뒤 2열, 좌우 3열 승객들은 관리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3명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게이트 앞에 마련된 임시 검역대 앞에서 줄을 선 채 한 명씩 고막체온 검사를 받았다. 온

도감지 카메라만으로는 고열 환자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일일이 고막체온기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다.

승객들에겐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큰 불만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승객 박금옥(52) 씨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검역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승객들이 입국심사대로 가는 통로에도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었다. 열감지 카메라에 신호가 나타나자 오문수 검역관이 해당 승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막체온기로 체온 검사를 했다. 다행히 체온이 섭씨 37.3도를 넘지 않았다.

평소 24시간, 요즘엔 40시간 이상 근무

이처럼 검역관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신종 인플루엔자A 감염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등 신종 인플루엔자A 감염 지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이 탄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내 검역과 승객 전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임관식 소장은 기내 검역에 대해 "신종 인플루엔자A 감염 의심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환자의 주변에 있는 동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가장 큰 임무는 외국으로부터 법정전염병과 신종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일하는 40여 명의 검역관이야말로 전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1차 방어막인 셈이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황중택 서기관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로 우리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해외 전염병 유입을 막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다.

검역관들은 의사와 간호사 외에 보건직, 의료기술직, 일반직 등 직종이 다양한 만큼 하는 일도 다채롭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로 고열 승객을 체크해 전염병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오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등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환자가 발생하면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공항에서 만난 검역관들은 눈이 퀭한 게 한눈에도 피곤함이 느껴졌다. 신종 인플루엔자A 차단을 위해 비상검역태세에 들어가면서 업무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평소엔 오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근시간을 새벽 4시로 당겼고, 퇴근도 다음 날 밤 1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어요. 43시간 가까이 일하는 셈이죠. 지금도 40시간째 일하고 있어요. 신종 인플루엔자A가 발생한 14개 오염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 오늘처럼 일일이 승객 전원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들 승객 숫자가 하루 9천명에서 1만명이나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상근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조영철 기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오문수 검역관이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로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로 검역관이다.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해외 전염병 유입을 막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검역관 39명을 추가 투입하고, 18대이던 체온측정 카메라도 6대 추가했다. 하지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은 단 한 명의 신종 인플루엔자A 감염 환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퇴근을 미루고 있다.

열감지 카메라로 승객들을 살피던 이설희 검역관은 "지치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질병 유입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일하는 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몸은 지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며 밝게 웃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서비스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10개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관련 협회장과 기업인, 전문가 등 35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는 데 공감하고, 각 분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선진화 방안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방송통신, 물류,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개선안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마련됐다.

교육 분야의 경우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 분야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내외국인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중심이다. 즉 정부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 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등도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0~11월 사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확정방안 이행실적 분기별 보고키로

방송통신 분야에선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와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자 등을 선정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각 분야 선진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글 · 구자홍 기자



연합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이것이 올바른 예방요령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을 위해서 대국민 행동요령을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cdc.go.kr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1989-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09. 6. 1 ~ 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www.asean-roksummit2009.kr | blog.naver.com/asean_korea

출산이 애국입니다

추락하는 출산율에 날개는 없는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산·고령화로 비상사태를 맞은 한국은 인구 급감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할 첫 번째 국가로 꼽히고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이제 단순히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호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젠 출산이 애국이다.





활짝 웃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진다.

'저출산 위기' 대한민국의 현주소
"낳기만 하면 누가 키워주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출산 현상에 따른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남은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다. 내세울 부존자원 없이 오직 인적자원만으로 무역대국, 디지털강국으로 떠오른 한국. 한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전국소년체전은 초중학교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 제전이다.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 부산의 가야초등학교 남자배구팀과 모라초등학교 여자배구팀은 각각 6명의 초미니팀으로 참가한다. 원래 전국소년체전 배구팀 출전 '풀 엔트리'는 12명이다

몇 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전국소년체전에서 후보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참가신청을 하는 팀들이 종종 있다. 후보 선수가 없다는 것은 '도' 아니면 '모'다. 경기 중 누군가가 다치기라도 하면 교체할 선수가 전혀 없으니 출전을 강행하거나 중도에 경기를 포기하고 보따리를 싸야 한다.

2006년 6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준우승을 한 부천 신도초등학교 야구부의 경우 초등학교판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후보선수 없이 단 9명만으로 시평가전, 도평가전 등 예선부터 결승전

까지 3개월간 무려 20여 게임을 해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기 중간에 선수 한 명이 연습을 하다 코를 다쳤지만 몇 달 고생을 수포로 돌릴 수 없어 4강 이후 경기를 강행해 결국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체육회 경기운영팀 박진우 씨는 "대회규정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해 남은 5, 6학년만 모으다 보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단체경기 출전 신청을 하는 학교가 생기게 된다"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운동 기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아이들 숫자가 적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온 국민에게 감격을 안겨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은 되새김질만으로도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팀들은 팀과 선수 수가 격감해 미국의 스포츠 전문방송인 ESPN이 "한국 야구는 WBC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가 됐다.

야구계에서는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소년 야구가 무너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당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자녀'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유소년 야구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경제적 부담, 직업적인 불확실성 등 다른 운동 종목과 마찬가지 원인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지만 말이다.

동아DB



지금 아빠의 자전거를 밀어주는 아이는 미래 한국사회의 기둥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농어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 감소까지 겹쳐 농어촌 학생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줄었고
농어촌 학교 대부분은 '미니학교'가 됐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줄어드는 학교들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2리에 위치한 군남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있는 날 아침마다 3대의 스쿨버스가 인근 지역으로 아이들을 실으러 떠난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한 개 반씩 18~23명의 재학생이 있어 전교생 1백42명에 불과한 군남초등학교에서는 매일 30~50명의 아이들이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한다. 스쿨버스가 운행하는 가장 먼 거리는 왕복 약 80킬로미터. 왕복에 한 시간이 걸려 아침 7시 40분에 학교를 출발한 버스가 아이를 싣고 돌아오면 8시 40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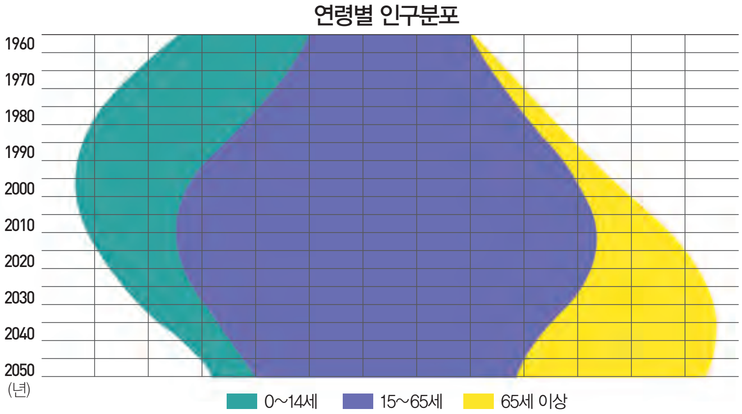
1959년 개교한 군남초등학교는 그동안 인근 지역 아이들 수가 급감하면서 인근의 북삼분교(1991년), 옥계초등학교(2000년)를 흡수통합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통학생이 늘어나자 연천교육청으로부터 스쿨버스 운영비를 지원받아 3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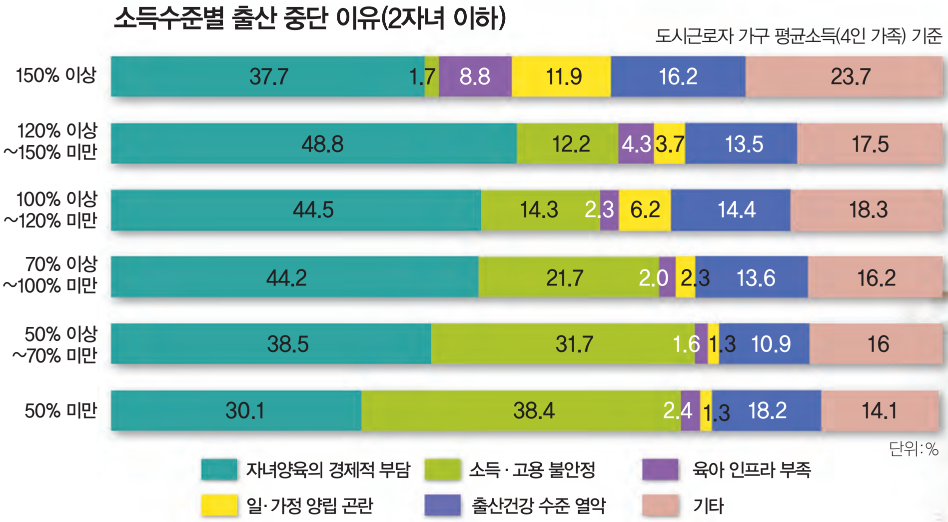
연천교육청 관리과 최경호 씨는 "현재 연천교육청 관내 7개 초등학교가 11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농촌지역 아이들이 나날이 줄어 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줄어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현상은 비단 연천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몇 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어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 감소까지 겹쳐 농어촌 학생 수는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줄었고, 농어촌 학교 대부분은 '미니학교'가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82년부터 일정 학생 수 이하 학교는 가까운 학교끼리 통합해왔다.

연령별 인구분포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주로 시도 교육청 주도로 3천7백43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1999년에는 정부 주도로 학생 수 1백명 기준으로 9백71개교가 통폐합됐다. 그 후 2005년까지 다시 1백83개 학교가 통폐합됐고, 2006년부터 진행된 농어촌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통폐합이 시급한 학교 6백여 개의 통폐합을 마칠 계획이다.

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동네 산부인과들은 이미 많은 수가 문을 닫거나 분만실 운영을 포기했다. 요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출산전문병원뿐이다. 대부분 동네 산부인과들은 산모의 산전 진찰과 불임치료에 주력하거나 비만 · 미용클리닉 등으로 진료과목을 바꿨다.

사상 초유의 저출산 국가 한국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둘도 많다'고 부르짖던 가족계획 표어가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거의 5명에 이르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족계획'의 효과가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강하게 나타났다.

197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4.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참고로 당시 일본의 출산율은 2.13명이었다. 그런데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1.32명으로 떨어진 일본도 추월해 더욱 빨리 추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최저 기록은 2005년의 1.08명이다. 이후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으로 꾸준히 저출산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천9백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인구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길한 경고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유엔미래포럼은 "한국의 출산율이 1.2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산율이 이처럼 계속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머잖아 고령사회가 형성된다. 고령사회에서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경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급증으로 세입은 줄고 정부 지출은 늘어나 재정 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퍼센트 이상)로 진입했으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노인인구 14퍼센트 이상),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퍼센트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소득수준별 출산 중단 이유'(위 표 참조)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 이 외에도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고용 여건의 불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등이 꼽힌다. 이들을 다 몰아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올해로 결혼 10년째, 자녀 없이 일과 취미를 즐기며 사는 '딩크족' 주부 김주연(가명 · 40) 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회사원이던 남편이 독립해 회사를 차리고, 나도 이직과 전직을 번갈아 하다 보니 아이 가질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가 온통 내 몫이 될 것이란 생각에 내 커리어와 생활을 포기하고 아이를 택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임신을 해도 '고민 끝'이 아니다. '지하철의 단상'이란 제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방주연 씨의 글은 요즘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나는 3개월 뒤면 첫아이를 출산할 임신부다.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두 번이나 갈아타며 지하철을 이용한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이 '임산부 보호석에 앉을까? 그냥 서서 갈까?'다. 직장 다니는 임신부는 출퇴근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할 것이다. 임산부 보호석에 앉아 있으면 배가 아주 부르지 않은 한 눈치보고 있다가 노인들에게 자리를 얼른 넘겨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넋 놓고 있으면 욕먹기 쉽다… 솔직히 아줌마를 구해 한 달에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아줌마 구하기를 꺼리는 부모들도 많다. 크면 클수록 챙겨주어야 할 것들도 많아지는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인구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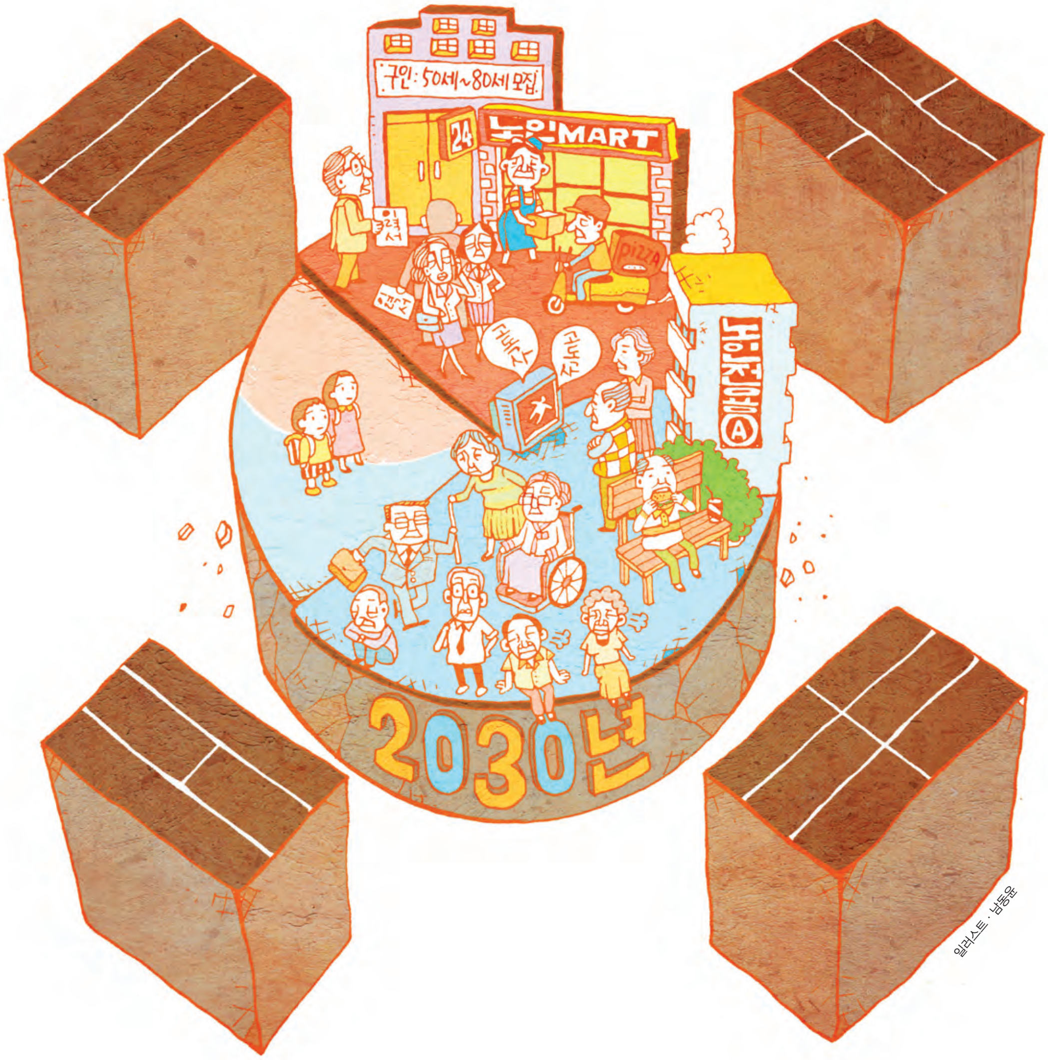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출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때는 '밀레니엄 베이비(2000년)' '쌍춘년(2006년)' '황금돼지해(2007년)' 단 세 해뿐이었다. 아이를 가질 부부들에게는 '어쩌다 한 해'가 아니라 매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해가 돼야 한다.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서중 과장은 "저출산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경제적 부담이어서 정부 정책은 출산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가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01년 이후 출산율과 출산순위를 분석해보면 첫째 아이의 비중이 늘고 둘째 아이의 비중이 줄고 있어 아이를 하나 낳고 단산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원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사진은 청계천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들.



일러스트 · 남동윤

2030년, 노인 김한국 씨의 쭈글쭈글한 하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재앙은 생각보다 머지않은 곳에 있다. 저출산이 재앙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

2030년 5월 8일 아침, 70대 중반인 김한국 노인은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 김 노인이 습관처럼 TV를 켜자 뉴스가 흘러나왔다. 몇 해 전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뒤 아침마다 눈을 뜨면 TV부터 켜는 버릇이 생겼다. 또 노인들의 고독사(가족이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하는 것) 소식이다. 고독사가 흔해진 요즘 무슨 뉴스거리라고…. 김 노인이 살고 있는 노인전용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달 전 한 노인이 고독사했다.

입맛이 없었지만 출근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했다. 젊은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연금을 부었지만 정작 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시기에 고갈 상태가 심해졌다. 요즘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아파트 관리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금도 일을 해야 한다. 머지않은 2044년에는 국민연금도 적자가 난다는 소식이어서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오히려 두렵다.

이어지는 뉴스는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재연됐다는 소식이다. 한때는 '미국과 러시아'더니 이제는 미국과 중국, 인도의 '3강'이란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력은 사라졌지만 예전 출산율이 유지되고 이민자를 받아들여 체면은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께부터 두 나라 합쳐 인구가 2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에 달하

더니, 2030년 들어 30억명으로 늘어나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2005년 1억2천8백만명으로 인구가 최고조에 달했던 일본은 1억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있다. 도쿄 디즈니랜드도 적자 누적으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체 인구 25퍼센트가 노인… 젊은 세대 부담 커져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으며 놀이공원이나 물놀이공원 중에는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5월 어린이날이면 수십만명씩 모여들던 서울어린이대공원도 며칠 전 어린이날에는 하릴없는 노인들만 뉴스 화면에 잡혔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딜 가도 보기 어렵다. 200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명당 2.1명이던 아동(14세 이하) 수가 2020년에는 0.8명, 올해(2030년)에는 0.5명이 됐다.

지하철 안의 노약자 보호석 표지는 몇 년 전 사라지고 대신 임산부 보호석 표지가 붙어 있다. 노인 공경보다 귀한 후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김 노인은 요즘 집 근처 대형할인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20여 년 전엔 김 노인과 같은 고령노인 채용을 기피하던 대형할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노동력 부족으로 70대 노인들을 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학이 발달해 노인들의 체력이 예전의 같은 연령대 노인들보다 나아진 것이다. 일부 부유층 노인들은 20년은 젊어 보이는 시술을 받기도 한다.

김 노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 지하철 안의 노약자 보호석 표지는 몇 년 전 사라졌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넘으니 굳이 노약자 보호석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임산부 보호석 표지가 붙어 있다. 이제 너나없이 노인인 세상에서는 노인 공경보다 귀한 후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김 노인이 일하는 대형할인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된 물품은 노인들을 위한 지팡이, 간이의자, 안마기, 실버용품이다. 매장 곳곳에도 또 다른 실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경제에 생기는 사라졌지만 가장 큰 소비계층이 노인세대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따로 살고 있는 외동딸이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다. '골드미스'로 불리던 딸도 이제 오십을 바라본다. 딸이 다니던 회사는 한때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나 갈수록 위축되어 요즘 딸은 이직을 생각 중이다. 게다가 월급에서 공제하는 연금, 의료보험료 등이 갈수록 많아져 딸이 이 문제를 투덜댈 때마다 김 노인은 괜스레 미안해진다.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 노인이 직장생활을 하던 2005년만 해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인 현재는 약 3.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니 젊은 세대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탓에 여전히 결혼을 미루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노인요양시설에서 95세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임종을 김 노인이 지켰지만, 김 노인이 떠나고 나면 딸의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 싶어 한숨이 나온다. G

글 · 박경아 기자

노동력 상실… 거대 노인인구 부양…

1+1=1? 대한민국 존속 위협하는 '저출산'

김한국 노인의 미래는 과연 가상이기만 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이삼식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부작용은 노동력 상실, '거대한 노인인구'의 부양, 활기와 다양성의 소멸"이라고 꼽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6년을 정점(3천6백19만명)으로 감소한다. 이미 노동력의 주축인 30, 40대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일자리 부족이 큰일이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2005년)에 따르면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이 문제여서 2015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1백52만명의 일손이 부족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은 2008년 38.7세지만 2020년에는 41.8세가 된다.

게다가 그동안 거대 수요계층이 돼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해 2015년 이후에는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2009년)에 따르면 고령화될수록 경제능력이 떨어져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퍼센트, 50대 가구의 70퍼센트 수준에 그친다.

개인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추계(2007년)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60년 소진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05년 6.18퍼센트에서 2030년 9.09퍼센트로 상승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다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재정 수지 위기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부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퍼센트에서 2020년대 2.91퍼센트, 2040년대 0.75퍼센트로 감소한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재앙을 가져올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동아DB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모유수유실에서 한 어머니가 수유하고 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 저출산 정책

4세까지 무상 보육지원 확대

경제위기는 결혼은 물론 출산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돼온 저출산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 여섯 살과 세 살짜리 두 아이를 둔 최혜영(가명 · 37) 주부는 요즘 고민이 많다. 두 아이가 모두 아들이어서 딸을 낳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아이가 돌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한 일을 둘째 아이가 생긴 뒤로 2년 동안 그만뒀는데, 셋째를 갖게 되면 또다시 2년 이상 일을 늦춰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최 씨는 "셋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경제적 문제나 사회활동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더 된 이진숙(가명 · 30) 씨는 맞벌이 부부다. 수원에 사는 이 씨는 남편은 수원에 근무하고 자신은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 씨는 "결혼한 지 1년이 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첫아이를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되도록 임신을 늦추고 있다. 맞벌이로 가계를 꾸려가도 부담이 큰데 임신과 출산으로 한동안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더 큰 고민은 출산 이후다. 이 씨는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지만,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면 야근이 많은 업무 특성상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축복 받아 마땅할 임신과 출산이 육아 문제와 경제적 여건까지 겹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 수는 46만6천명으로 2007년 49만3천명보다 2만7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집계한 합계출산율 역시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0.06명 감소했다. 둘이 하나가 돼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뤘지만 1명의 자녀만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 '1+1=1' 이 돼서 이론적으로 다음 세대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지 않도록 결혼은 물론 출

산과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어려울수록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민의식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요 저출산 정책은 ‘불임시술비 지원’이나 ‘산전 검사 비용 지원’ 같은 건강 보호 측면을 비롯해 보육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세제혜택 등 크게 다섯 분야에서 마련돼 있다.

| 임신 출산 | 초음파검사·불임시술비 지원

정부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백30퍼센트 이하를 벌어들이는 불임부부는 체외수정 평균시술비의 50퍼센트인 1백50만원 한도 안에서 총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의 85퍼센트인 2백55만원까지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을 1회당 2백55만원에서 2백7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은 31퍼센트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로 태어난 아이 수는 6천5백40명이었다.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를 할 때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전 진찰 검사 가운에 초음파검사 비용은 1인당 평균 26만원이다. 이 경우 1인당 20만원의 전자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영양관리도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2백퍼센트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임산부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한 뒤 특성에 맞게 보충식품패키지 제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충식품패키지는 콩과 우유, 분유, 달걀 등을 대상자에 맞게 여섯 종류로 마련한 것이다.

‘산모도우미 파견’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퍼센트(3인 가구 기준 1백69만원) 이하 가정에는 도우미를 파견할 예정이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수에 따라 2주에서 4주로 차등화하고, 정부지원액도 57만원에서 1백57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적용 기준을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미혼모시설에 있는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1백퍼센트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연령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대책 현황

분야	정책	임신·출산	영·유아	취학전 아동	학령기 아동
보육	보육비 확대 지원		●	●	
보육	양육수당 지급		●	●	
보육	보육인증제 확대		●	●	
보육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	
보육	i-사랑카드 도입		●	●	
보육	방과후 학교 확대			●	●
건강·보호	불임시술비지원	●			
건강·보호	산전검사비용지원	●			
건강·보호	찾아가는 산부인과	●	●		
건강·보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	●		
건강·보호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		●	●	●
건강·보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	●	●
건강·보호	취약계층 아동지원		●	●	●
일·가정 양립	배우자출산휴가	●			
일·가정 양립	산전후 휴가 급여	●	●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직장보육시설 지원		●	●	
일·가정 양립	탄력근무제 확대		●	●	●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촉진 지원		●	●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제		●	●	●
세제혜택	출산 크레디트		●		
세제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		
세제혜택	모성보호급여비과세		●		
세제혜택	6세미만 자녀 공제		●	●	
세제혜택	다자녀 추가 공제		●	●	●
세제혜택	보육·교육비 공제		●	●	●



동아DB

정부는 결혼은 물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동아DB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정부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보육 | 무상 보육지원 단계적 확대

정부는 0세에서 4세까지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백퍼센트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지난해 62만명에서 올해 74만명으로 확대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차상위계층 26만명에서 올해 소득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47만명으로 늘렸다.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의 5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상은 3세 미만 자녀로, 휴직기간도 1년으로 늘렸고, 맞벌이의 경우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증원해 이들 인건비의 80퍼센트(1백만원)를 지원하고,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돌보미 파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지원 인원을 2007년 2천7백25명이던 것을 지난해 3천5백5명으로 늘렸고 올해에는 5천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지원센터'도 지난해 65개 시군구에서 올해에는 2백32개 시군구로 늘린다.

올해 7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도입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0세에서 1세 아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2백83만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한 영·유아가 1백4만명으로 전체 37퍼센트를 차지했고, 유치원 이용 영·유아가 54만명으로 19퍼센트,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1백26만명으로 전체 영유아 가운데 44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정부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는 물론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보육료를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데 정부가 지급한 i-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업무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보호 | 전국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무료 시행

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도 실시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교육과 문화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75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2백7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s) 제도도 시행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이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나 지자체도 18세에 이를 때까지 같은 액수로 상응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이나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 자립자금을 마련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시설 등에서 사는 아동이다.

정부는 또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자녀를 돌볼 여건이 안 되는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학습지도, 상담서비스도 추진한다.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해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방과후 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2세에서 6세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지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처방과 영양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2008년 6월 현재 비만지수 20퍼센트 이상의 경도비만 초등학생은 7천4백94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를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용의 3분의 1도 지원한다.

| 사회환경 조성 |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정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도입했다.

육아휴직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 자녀로 확대됐다. 휴직기간도 10.5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맞벌이의 경우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육아휴직 기간을 1회 분할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를 도입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유

동아DB



정부는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지난해 7월 20인 이상 기업 대상에서 2011년에는 20인 이하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도 확산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 실시한다.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인증마크 등을 홍보에 활용토록 하고 정책자금 융자 때 가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 조세·사회보험 | 자녀 양육가정 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해 적용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때 자녀 양육가정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를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1백만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출산, 양육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통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의 연금 납부기간을 추가해준다. 또한 육아휴직 때에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휴직 전 월소득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의 50퍼센트로 경감해줄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동차 한 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해주기로 했는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인 이하가 해당된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프랑스 출산비 전액지원, 영국 아동수당 지급, 일본 저출산담당 장관 임명

"더 낳으세요" 선진국도 올인했다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들이 경험한 일종의 '선진국병'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가정 둘 낳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선진국들은 소폭 늘어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보면 미국 2.1명, 프랑스 2.0명, 영국 1.8명을 기록했다. 한동안 유럽 대표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1968년 혁명 이후 불어닥친 성해방 운동은 프랑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부추겼고, 출산기피 풍조를 심화시켰다. 급기야 1995년 출산율이 1.71명으로까지 떨어지자 국가 존립에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정부는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집요하고 연속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친 결과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제2의 베이비붐'이 계속되고 있다. 출산율은 2008년 2.02명까지 높아졌다. 프랑스가 '마(魔)의 2명 벽'을 깨뜨리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프랑스가 유럽 출산율 리그에서 아일랜드를 제치고 우승했다"고 보도했다.

魔의 2명 벽 깬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까지 보장

프랑스는 출산, 육아, 모성보호 등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5백65억유로(약 94조7천3백75억원)를 투자한다.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은 규모다. 정부는 임신기간 동안 모든 의료비와 출산비용을 1백퍼센트 지원한다. 불임부부에겐 소득에 상관없이 시험관 아기 시술(4회)과 인공수정(6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REX

국방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출산에 투자하는 프랑스에서는 10년째 베이비붐이 이어지고 있다.


REX

일본은 근무시간 조절, 휴가제도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8백63유로(약 1백46만원)를 지원하고, 입양을 하면 1천7백27유로(약 2백93만원)를 일괄 지급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백20유로(약 20만원)~4백3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한다. 매년 9월에는 학용품 구입용 개학수당(2백68유로·약 45만원)이 나온다.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영화 관람이나 음악회 입장료, 공공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족 카드'가 지급된다.

프랑스는 재정 지원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까지 보장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이 첫아이를 낳으면 최소 20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최소 40주를 유급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후 원직복귀'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 이 결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5~49세 프랑스 여성의 81%가 직장을 갖고 있고 이 중 3분의 2가 자녀 두 명 이상을 키우고 있다.

영국, 임신만 해도 '아기 보너스' 지급

영국 정부는 산모뿐 아니라 아빠들에게도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6일부터 여성이 임신만 해도 1백90파운드(약 36만원)의 '아기 보너스'를 지급한다. 아기를 낳으면 16세 때까지 첫째 아이는 매주 20파운드(약 3만8천원), 둘째 아이부터는 매주 13.20파운드(약 2만4천원)의 '아동수당' (Child Benefit)을 지급받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8세가 되기까지 부모는 4백80일(1년 4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부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해야 하며, 아빠도 최소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저출산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마련했으며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산업에서는 'e-work@home'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맞벌이 주부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근무시간을 조절해가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불임부부를 위해 1개월~1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일드 플랜 휴업' 제도, 미취학 아동의 병 간호나 아이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해 연간 닷새까지 휴가를 낼 수 있는 '패밀리 서포트 휴가 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기피' 러시아 새 안보 위협은 인구감소

냉전시대의 옛 소련 인구는 미국보다 많았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경제난과 자유로운 생활방식 도입으로 젊은이들의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졌다. 러시아 인구는 1990년 1억4천8백30만명이었으나 현재 1억4천2백90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2.1명의 높은 출산율과 몰려드는 이민자 때문에 올해 인구가 3억명을 넘어섰고, 2043년에는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50년 러시아 인구는 미국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 위협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소국화(小國化)와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의 무인화(無人化)다.

미국은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이 없지만 아이 탄생을 반기고 축하해주는 '베이비샤워' 문화가 정착돼 있다. 또 낙태금지법이 확고한 주가 많으며, 남편들이 가사 분담과 아이 돌보기에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다. 특히 이민자, 저소득가정, 싱글맘이나 어린 학생 산모 등 '소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눈길을 끈다. 미국의 상당수 대학은 캠퍼스 내에 학부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와 수유실, 육아실을 설치해 자녀를 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인구증가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육아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다산 여성에게 훈장을 주는 옛 소련의 전통을 재도입해 훈장과 2천2백달러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울리야노프스크주는 매월 12일을 '임신의 날'로 선포, 이날 하루를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G

글 · 전승훈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아이 하나에 행복 하나… 다둥이 가족 릴레이 인터뷰

바람 잘 날 없어도 웃음꽃 주렁주렁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건 이제 옛말이다. 다둥이 가족들은 "아이가 많을수록 웃을 일이 많고, 행복도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요즘 부모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진정한 행복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고 되묻는 세 다둥이 가족을 만났다.



김연정 씨는 남편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7남매를 기르는 것이 수월하다고 밝혔다.

서울 7남매 황운기 씨 가족

"공주님 욕심에 7남매까지 낳았죠"

서울 영등포구 신월5동의 주택가 2층. 계단을 올라가기도 전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 관철이의 인사 소리에 네 형제가 우당탕탕 달려 나왔다. 아빠 황운기(39) 씨와 엄마 김연정(32) 씨는 각각 세 살 윤지와 생후 9개월인 윤아를 안고 기자 일행을 반겼다.

"무남독녀로 외롭게 자라 그런지 결혼하면서 셋은 낳아야지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다섯째까지 줄줄이 아들이더군요. 남편이나 저나 딸 욕심에 여섯째를 임신했는데, 다행히 딸이었죠."

남편 황 씨 일가는 딸이 귀한 집이라 여섯째 윤지의 탄생은 집안의 경사였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딸이라니 그럴 법도 하다. 부부는 이런 윤지가 외로울까봐 여동생을 만들어 주자고 결심하고 막둥이를 임신했고, 바람대로 '공주님'을 맞이했다.

"애들 돌보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둘 기르는 것보다는 네댓 명 키우는 게 나아요. 엄마가 안 놀아줘도 저희들끼리 알아서 챙기고 노니까요."

교육비 걱정되지만 후회 없어요

김 씨는 무엇보다 육아에 적극적인 남편이 고맙다고 한다. 영등포의 한식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남편은 쉬는 날이면 아기 돌보미를 자처한다. 남편은 손목 아픈 아내를 대신해서 여섯 아이가 돌을 맞이할 때까지 아이들 옷을 손수 빨았다. 또 '군기반장'을 자처하는 큰아들은 동생들을 돌보면서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아 부모의 자랑거리다.

황 씨 가족은 셋째아이를 낳은 후부터 정부의 출산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이 한 명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16만원씩 지원받지만, 재료비나 특강비 등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고 했다. 또 줄줄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걱정이다. 하지만 황 씨 부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아이 못 낳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 갖는 건 미루면서 애완동물을 꼭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 기르는 돈이면 애들 키우고도 남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장난꾸러기 5형제 때문에 외출이 두렵다(?)는 황운기 김연정 부부. 그러면서도 까꿍 하며 갓난아기를 어르는 아이들을 보는 그들의 눈엔 사랑이 가득했다.

경기 김포시 5남매 박오승 씨 가족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막내가 마루를 기기 시작하자 셋째 예원이(7)가 덥석 안더니 까르르 웃는다. "우리 오돌이 너무 귀엽죠?" 오돌이는 5남매의 막내 하원이를 언니 오빠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5남매' 라는 긍지와 사랑을 듬뿍 담은 이름인 셈이다.

돌이 갓 지난 오돌이의 엄마 아빠는 이은아(38) 박오승(44) 부부. 대학 시절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한 이들은 결혼한 지 이듬해인 1997년에 터키로 떠났다. 신앙인으로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 씨는 터키에 머물면서 큰아이 시원이(10)를 시작으로 열매처럼 예쁜 아이들을 연달아 낳았다. 아들 하나, 딸 셋. 사실, 골목마다 아이들로 가득한 터키에서 네 아이는 많은 축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만 9년을 터키에서 보내고 2007년에 귀국했다. 남편 박 씨의 신학대학원 진학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온 부부는 임신을 했고, 막내아들 하원이가 태어났다.



5남매를 위해 TV를 버린 박오승 이은아 부부. 자녀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다고 입을 모은다.

"5남매를 데리고 외출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참 예쁘다' 고 머리를 쓰다듬다가도 '아빠, 직업이 뭐냐, 돈은 많이 버시냐?' 묻더라고요(웃음). 물론 돈으로 키우자면 끝도 없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사교육비로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 집에는 TV가 없다. 첫애를 낳으면서 아예 TV를 치워버렸다고 했다. TV뿐 아니라 아빠 박 씨는 탄산음료도 끊었다. 아이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먹여주고 싶어서다. "아빠가 먹으면서 아이더러는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음식도 사절이다. 부모부터 모범을 보이니 TV나 게임기 없이도 아이들은 잘만 논다.

다둥이 가족 경차 지원은 넌센스

거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 책이 가득하다. 동화책을 좋아해서 1년이면 3백 권씩 읽어치우는 아이들이다. TV와 온라인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며 놀거나 책을 읽는다. 다 읽고난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치우는 것도 아이들 몫이다. 이 씨 부부는 아이들이 집안일을 일부 돕게 한다. 분리수거가 아이들의 몫. 아이들이 꽤나 좋아해서란다.

"다섯 아이를 키우는 게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녀 키우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이은아)

"가끔 어른들이 '잘 낳았다, 자녀가 재산이지' '지금 고생해도 늙어서 덕 볼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달갑지는 않아요. 우리가 노후를 기대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저마다 태어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는 소중한 존재거든요."(박오승)

박 씨는 정부의 출산대책에 대한 바람도 밝혔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경차를 구입하면 지원을 해준다는데, 사실 아이가 많은 집은 경차가 필요치 않거든요. 이런 세세한 점까지 신경 쓴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충북 진천군 10남매 권학도 목사 가족

"열째야, 환영한다~"

중매로 만난 아홉 살 연하의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었던 마흔 살 노총각은 프러포즈를 하며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농촌에 살 것,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실 것,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을 것. 아가씨는 이런 간 큰 남자의 청혼을 선뜻 받아들였다. 그가 내건 조건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생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17년 만인 지난 3월 초, 열 번째 아이(7남 3녀)를 낳은 권학도(57) 목사와 이재순(48) 씨 이야기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권 목사의 집에 들어서자 '열째야 환영한다'는 글귀가 쓰인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언니 오빠들이 동생을 위해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99제곱미터(30평) 남짓한 집에는 화장실이 2개, 컴퓨터가 3대 있고, 곳곳에 책들이 빼곡한 책장이 놓여 있다.

시어머니까지 열세 식구의 살림을 꾸리는 이 집의 안주인 이재순 씨는 아이들을 모두 자연분만하고, 모유 수유로 키웠다. 배가 꺼질 날이 없었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유 수유를 하다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바통 터치를 해서 또 젖을 물렸다. 아이들 중 여섯이 연년생이다. 출산할 때 항상 아내 곁을 지켰던 권 목사는 "아이 하나하나 낳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여섯째 강찬이는 4.6킬로그램 우량아라 힘들었고, 여덟째 예찬이는 갓난아기 때 장중첩증으로 고생했죠. 일곱째 은혜도 다섯 살 때 열이 나면서 경기를 해 마음을 졸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하나쯤 아프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겐 하나하나 다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의미 있다고 권학도 이재순 부부는 강조한다.

온 가족 함께하는 훈기가 최고의 행복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은 모두 감사하게 받기로 약속한 권 씨 부부는 임신 중 기형아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설령 잘못된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키울 각오가 돼 있기 때문이다.

"힘들다고 푸념하고 쪼들린다고 계산기 두들기다 보면 아이들 못 키워요. 그리고 힘들 때보다 기쁠 때가 더 많고요. 아이들은 제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돈 들어갈 일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할 방법도 생기더라고요."(이재순)

"일곱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펼 때였기 때문에 넷째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덟째를 낳을 때부터는 출산장려정책 덕에 한숨 놓았지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많아졌고요."(권학도)

저출산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심각하다. 맏이 은진이(18)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3개나 되던 인근 초등학교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권 목사네 아이들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비슷한 두세 명씩 그룹을 이뤄 놀고 같이 공부도 하더라고요.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지만, 모두 성적이 상위권이죠. 학급, 학교 임원도 도맡아 할 정도로 리더십도 강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훈기가 좋다는 권학도 이재순 부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단다. G

글 · 정지연 기자, 김명희 여성동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다산의 여왕' 개그우먼 김지선의 출산장려 편지

"집안이 복닥거려야 살 맛이 나죠"

넷째를 가졌어요. 벌써부터 집안이 복닥거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커가는 아이들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어려울수록 가족이 힘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지선입니다. 요즘 제 별명 아시죠? 다산(多産)지선. 개그계의 '출산드라'…. 호호호, 맞아요. 제가 넷째를 가졌거든요. 아들 셋도 키우기 힘들다고 걱정들 하셨는데, 제가 넷째를 가졌다니 어떤 분들은 또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즐겁기만 하답니다. 엄마들은 제 맘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 키우랴, 방송활동하랴,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지만요, 일과 가정, 저에겐 둘 다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더없이 행복해요. 제가 일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태울 수 있는 것도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이 없다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9명이래요. 프랑스는 2.0명, 일본은 1.3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6명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출산율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지요. 이런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1명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대요. 그만큼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봐요.



넷째아이를 임신한 개그우먼 김지선 씨는 정부의 출산장려혜택을 더 많은 임산부들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엄마만의 몫은 아니죠. 이젠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국민들이 아이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출산 전후 각종 지원 꼭 챙기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알아보니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먼저, 출산 전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출산 후에도 저소득층 가정에는 적은 비용으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무상보육 대상도 늘리고, 육아비 지원도 할 계획이라니 든든하네요. 참, 신혼부부들에게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도 적극 지원하니까 꼼꼼히 따져서 혜택을 챙기세요.

'기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려면 엄마뿐 아니라 아빠들도 아이를 함께 키워주셔야 해요.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네 아이의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집안이 복닥거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커가는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제 소원이거든요.

제 남편도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가족 만든 거래요. 일하랴, 집안 살림하랴, 아이들 키우랴, 우리 엄마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요. 키우기 힘들다고 애 낳고 후회하신 분 계세요? 어려울수록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어요. G

글 · 안소희 객원기자

명사 5인이 말하는 '저출산 극복 해법'

인구가 국가경쟁력… 아이는 축복입니다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교육비와 주거비의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시대의 슬기로운 해법에 대해 각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 김태균 개그맨 |

"저출산시대, 아빠도 육아에 참여해야죠"

얼마 전 펴낸 책 〈태교가 즐겁다〉 때문에 요즘 '팔불출 아빠' 취급을 받고 있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처지에서 본 태교이기에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태교일기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출산 일기장을 나눠준 게 계기가 됐다. 받자마자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나보다 더 태교일기를 좋아해서 술 마시고 들어온 날도 지렁이 글씨로라도 꼭 써야 했다. 그렇게 2백80일 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했다. 책 출간이 늦어져 아이는 벌써 세 살이 됐지만, 아이한테나 나한테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요즘 저출산으로 나라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 집도 맞벌이인데 아내가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직장 일 하랴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아내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다 해도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다 잘해내기는 힘들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자. 하다못해 나처럼 웃겨주기라도 하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남자들은 '공공의 적' 취급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출산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동아DB



| 박윤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 |

"인구가 미래 국가 파워다"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자연감소국이 된다고 한다. 지금 추세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230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만명가량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위기이자 재앙으로 다가왔다. 인구가 줄면 일하는 사람이 줄고 경제성장은 더뎌지며 시장도 작아져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범국민적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각 사업장마다 'Work & Life Balance(일과 가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혼남녀에게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며 자녀를 키우는 일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출산이 미래의 희망임을 모두가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야구선수 서재응 |

"아이 낳아 기르는 게 가장 큰 축복"

동아DB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2005년과 2007년에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이번에 셋째로 아들을 낳았다. 한국에서 낳은 아이로는 처음이라 더욱 마음이 각별하다.

'셋째 아이는 부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프로야구 선수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셋까지 키우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결혼 전에 약속한 것이 있었다. 아이를 낳을 거면 적어도 셋은 낳자고. 아이가 둘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 함께 부대끼며 형제애를 느끼도록 해주려면 셋은 필요하다고 여겼다. 또 셋째를 가질 때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던 점도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은 셋을 낳는다고 하나를 키울 때의 3배가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낳으면 낳을수록 행복은 배가 되고, 그 비용은 적게 든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출산 문제를 너무 경제적인 면으로만 몰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축복이요 가정의 지극한 행복이라는 데 가치를 둔다면, 육아의 피로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20대 젊은 층부터 결혼 · 출산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최저 상태다. 불과 10년 후면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사회의 생존조차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당분간 출산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이래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금감면과 육아시설 확충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증진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대상 집단을 선정해야 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재원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둘째, 제한된 재원을 감안할 때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최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저출산 지향의 사회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의 해소,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 황은숙 한부모가정연구소 소장 |

"한부모가정 위한 지원도 고려해야"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로 출산장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자녀 이상 낳은 가구에는 출산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고, 병원비 등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면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게다가 경제적 부담이나 기타 사유로 부모의 이혼, 방기 등 가정해체가 진행된다면, 저소득층 가구에서 한부모가정이 다수 양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올 수 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정의 약 8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37만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며, 가족 수는 3백50만명이라고 한다. 그중 아이들은 2백20만명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출산시대, 한부모가정과 이 아이들은 정부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 한부모가정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이나 교육의 문제에서는 물론, 병원 등 복지 부문에서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한부모로서, 새로운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G

글 · 정지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35세 전에 둘 낳자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변했어요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인구억제 정책'으로 시작됐다. 1970년대만 해도 5명이 넘는 출산율로 매년 60만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 2.8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가족계획은 2004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으로 급선회했다.

표어로 살펴본 가족계획 변천사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1961년 4월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정책결정기관인 국가재건위원회는 가족계획을 '국가 시책'으로 채택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2006년 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주관해왔다.

그동안 가족계획을 주관한 협회에서 내놓은 시대별 표어나 유행어를 보면 당시 세태를 읽을 수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어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했다. 1966년에는 '3·3·35운동'을 펼쳤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도 산아제한이라는 기조는 유지되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1973년 내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봐도 명확하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로 시작된 1980년대,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하나만 낳자는 정부 시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성비(性比) 불균형이 심각해진 것.

1990년대 등장한 표어는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하지 말자'로 골라 낳기에 경종을 울리는 문구로 바뀌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자 가족계획은 출산장려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2004년 대상을 받은 가족계획 표어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와 '엄마 아빠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말입니다'(2006년) '아이가 미래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이상 2007년)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에는 1960년대 '3·3·35 운동'에 견줄 만한 운동으로 '1·2·35출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 후 1년 안에 임신해서 2명의 자녀를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것이다. 만혼이 저출산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인구억제'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이제 출산장려로 바뀌었다.

콘돔을 고무풍선으로 착각

2006년 상영된 코미디 영화 <잘 살아보세>는 1970년대 가족계획 당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지금은 '격세지감(隔世之感)'이지만 당시에는 산아제한이 국가적 과제였음을 엿볼 수 있다.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홍보영화 등 갖가지 산아제한 방법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자 정부가 전국 각지로 가족계획 요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처녀인 주인공 박현주(김정 분)는 국가 공식 지정 가족계획 요원으로 전국 출산율 '부동의 1위'인 농촌마을 용두리에 간다. 이곳 주민들은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최고'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수임무를 띠고 파견된 박현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입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배도 가지고 나온



1960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

딸 ·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



1980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90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교제 건전하게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 딸로 판단 말자



2000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어와 포스터들.

다"며 피임에 무지한 마을 주민에게 콘돔, 정관수술 등 각종 피임방법을 알려준다. 콘돔을 난생처음 접한 마을 주민들은 고무풍선으로 착각, 실소를 금치 못할 사건들이 일어난다.

1991년 대한가족계획협회 명의로 펴낸 〈가협 30년사〉에도 여성요원들이 가족계획 홍보를 하다 곤란을 당하는 사건이 적혀 있다. 가족계획 여성요원 1백여 명이 세미나 겸 속리산 관광을 갔다가 근처 마을로 가족계획 홍보를 나갔다고 한다. 여성들이 콘돔을 내놓으며 피임 운운하는 것을 본 동네 청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무지막지한 습격'으로 내쫓는 사건이 발생해 영화 속에 나타난 에피소드가 허구만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대 가족계획을 소재로 한 영화 〈잘 살아보세〉.

피임약이 유산약?

가족계획에는 피임이 필수다. 가족계획이 1961년 정부 사업으로 바뀌면서 피임약 수입금지령이 폐지돼 1966년 먹는 피임약 '아나보라'가 수입된다. 당시 이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6개월 만에 속성 임상실험을 끝내는 등 동분서주했다고 한다. 이어 수입된 '오이기논'을 두고 시골사람들은 "귀찮고 잊기도 쉬운데 왜 매일 먹어야 하느냐"며 사흘치나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다 출혈과 함께 유산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자 피임이 아니라 임신 후 아이를 지우기 위해 '유산약'으로 먹는 일까지 생겼다.

피임약 보급뿐 아니라 무료 정관수술과 자궁 내 장치시술도 전국적으로 전개됐으며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도 추진됐다. 모성보호와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1972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가 포함된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것이다.

자궁 내 장치와 먹는 피임약은 경제적이기는 했지만 탈락률과 중단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좀 더 확실한 피임을 위해 1974년부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강경수술과 영구피임법으로 알려진, 난관을 묶는 '미니랩'도 피임수단으로 보급됐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책은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선회했다. 즉 '묶은 자가 풀자'는 의미로, 과거처럼 정관이나 난관을 묶거나 약물로 막았던 피임시술이 아니라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공수정 등의 출산장려 시술을 시행 중이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CC서밋 팀원들은 지속적인 훈련과 가족 같은 팀워크를 우승의 핵심 원동력으로 꼽았다. 왼쪽부터 김수현(30), 한일석(55) 팀장, 이환걸(25).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청주코스 단체 우승팀 'CC서밋'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타보세요"

"단체 1위는 CC서밋(SUMMIT)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 참가한 20팀 가운데 CC서밋이 원주~충주~청주 구간 경주에서 1위로 호명됐다. CC서밋은 어떻게 팀워크를 다졌기에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일까.

'CC서밋'은 아마추어 자전거 동호인 사이에서는 유명한 팀이다. 지난해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대회에서 팀 종합우승을 거머쥐었고, 올해 제1회 전국자전거축전에서는 '용산레이싱'에 이어 2위에 올랐다.

CC서밋은 처음부터 짱짱한 실력의 선수들로 짜인 팀이 아니었다. 그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주변 추천을 통해 아마추어들이 모여 결성한 팀이다. 그런데도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는 비결은 뭘까.

팀원들은 지속적인 훈련과 가족 같은 팀워크를 핵심 원동력으로 꼽았다. 아마추어 동호회 팀이라고 훈련 수준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팀원 전체가 라이딩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주중에는 적어도 두 번의 개인훈련을 해야 한다. 팀으로 구성된 이상 실력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목

표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월에는 특별훈련도 있다. 웨이트, 지구력, 스피드, 실전훈련 4단계로 이뤄진 풀코스의 훈련이다. 여름에는 강원도 백봉령~삽당령~대관령~운두령~구룡령~조침령~한계령 등 강원도 고개 2백60킬로미터를 넘는 10시간 30분 코스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자전거 자체에 대한 이론 공부도 더한다. 주변에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워크 덕분에 CC서밋이 각종 대회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투르 드 코리아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일이다. 경남 거창쯤을 지날 때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그 와중에 팀원 중 한 명의 고글 렌즈가 빠져버렸다. 모두 당황하던 사이 한일석 팀장은 주저 없이 자신의 고글을 벗어주고 경기를 이어나갔다.

“비가 쏟아지는데 고글이 없으니 눈에 모래와 빗물이 뒤섞여 들어와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 같은 선수가 힘든 것보다 제가 불편한 게 차라리 낫죠.” 그날 이후 주변 동호인들에게서 “CC서밋은 다르다. 역시 멋진 팀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됐다. 팀원들도 한 팀장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따를 만큼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했다.

이환걸 씨는 “팀장님과 팀원들의 나이 차가 있다 보니 팀장님이 늘 우리를 자식처럼 대해주십니다. 엄한 아버지처럼 때론 야단도 치시고 잔소리도 하지만 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죠. 학생인 저희를 위해 장비도 자비로 지원해주십니다. 덕분에 저희는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다.

수술해야 했던 무릎 관절도 나아

팀을 다독이고 이끄는 한 팀장을 움직이게 한 건 뭘까. 한 팀장은 이 모든 게 자전거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자전거 애호가들인 축전 참가자 중에서도 한 팀장의 자전거 예찬은 유별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술을 해야 한다던 무릎관절이 자전거를 타면서부터 나아졌기 때문이다. 슬슬 자전거에 재미가 붙자 한 팀장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 스스로 체력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호흡과 체중을 유지하려고 술과 담배까지 끊으면서 자연스레 가정적인 남편이 됐다. 주변 친구들에게 “일단 자전거 한번 타보라”고 권하면서 위기의 가정도 구원했다고.

“의사가 수술 전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고 권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면에서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자전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자전거를 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일단 믿고 시작해 보세요.” 자전거 타기를 권하는 한 팀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의사가 수술 전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고 권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자전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자전거를 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믿고 시작해 보세요.”

그는 “그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전수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봐뒀던 자전거 코스를 알리는 등 자전거 문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 혼자만 탈 수는 없지 않겠어요”라며 “다 같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생활문화가 자리 잡도록 모든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한 대표는 마음을 담아 재차 강조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인생이 변합니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제공



자전거 매니아들은 “자전거를 타면 인생이 변한다”며 “일단 자전거를 타보라”고 권한다.

농촌진흥청 행정인턴 취업 성공기

“멍석 깔아줬으니 이젠 제가 뛰어야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인턴 1만9백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이는 7백53명. 현재 인턴으로 활동 중인 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조영철 기자

정익재 씨는 행정인턴 경험이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행정인턴은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깔아준 기회의 마당입니다. 누가 취업하고 더 성장하느냐는 결국 각자가 노력할 몫이죠.”

지난 3월까지 농촌진흥청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한 정익재(29) 씨. 인턴 이전에도 사회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동료들과는 다소 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그런 만큼 제도를 보는 눈도 더 현실적이다. 정 씨는 “행정인턴제도는 고실업률로 가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보호장치”라며 “젊은이들은 이 ‘특권’을 기꺼이 이용하되,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심도 있는 실무지식 습득을 기대하는 지원자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일을 대하는 자세, 조직생활의 덕목 등을 배울 수 있죠. 어쩌면 사회생활 초년병에게는 업무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자질입니다.”

1년 반 남짓한 개인사무소 생활을 그만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그에게 행정인턴은 여러 모로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맡았던 일은 농촌진흥청 경영분석팀에서 각종 문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 농업소득 통계, 경영비나 생산비 통계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파일로 만들어졌다.

희망 진로와의 연관성 따져라

인턴으로 일한 기간은 정 씨에게 기본적인 생계도 해결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서류 복사나 하는 고급 ‘알바’가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지만, 어느 조직이나 처음 들어가면 허드렛일부터 시작하기는 매한가지다. 행정인턴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의 분위기를 익히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춘다면 구직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 다만 행정인턴은 전공과의 벽이 다소 높고, 아무래도 단순 업무에 국한되기 쉽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행정인턴의 책임 영역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행정인턴이 모든 것을 다 이뤄줄 것인 양 막연히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를 좋은 발판으로 삼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취업에도, 인생에도 성공하겠죠.”

행정인턴 활동을 마치고 현재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 씨는 다른 모든 제도처럼 행정인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박차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으니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하는 김현정(26) 씨는 행정인턴의 장점으로 취업 준비과정의 안정감 확보를 꼽는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흔히 ‘혼자만

연합



행정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5퍼센트가 인턴 경험이 향후 사회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뒤처지지 않을까, 사회 나가서 잘 적응할까' 하는 초조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데 행정인턴제도가 청년 구직자들의 이런 불안감을 많이 씻어준다는 것.

김 씨가 맡은 업무는 농업인 대상의 사이버 교육과 관련이 있다. 사이버 농업인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교재나 수료증 배부 등을 처리한다. 전산학을 전공한 덕에 사이버 쪽 업무에 배치됐다.

"행정인턴 일이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거나 깊은 지식을 쌓는 업무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끼는 법, 조직생활의 생리 등을 배우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죠."

행정인턴 경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행정인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턴 근무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1.5퍼센트, 인턴 경험이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87.5퍼센트에 달했다.

정부 각 부처는 워크숍 등을 통해 행정인턴에게 크고 작은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또한 인턴들에겐 유익한 기회다.

"우리 기관에서는 인턴들의 의견을 물어 희망사항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자기계발 통로가 돼주는 셈이죠."

김 씨는 행정인턴에 지원할 때 사회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뚜렷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가를 먼저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행정인턴은 본격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한 잠시 동안의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본인이 얼마나 발품을 팔고 쫓아다니느냐에 따라 사회 진출 뒤의 역량이 달라집니다.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배치되면 이러한 자기계발 욕구나 노력이 절로 커지겠죠."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정경택 기자



김현정 씨는 행정인턴의 장점으로 취업 준비과정의 안정감 확보를 꼽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암 검진 홍보대사 탤런트 김승환

“조기검진으로 암 이겨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가족부 암 검진 홍보대사 탤런트 김승환입니다. 제가 암 검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저 자신이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암은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조기검진을 통해 대장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을 거쳐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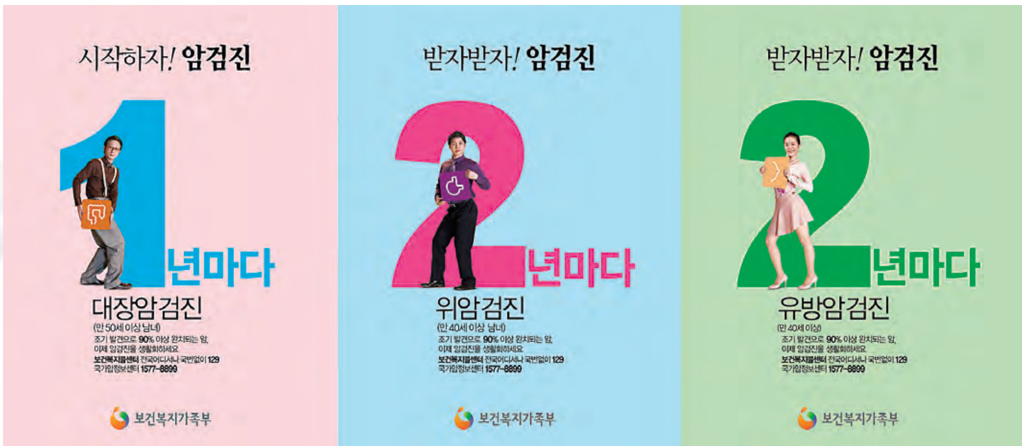
만약 조기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아마 많은 암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요, 보건복지가족부가 펼치는 ‘암 검진 실천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조기발견하면 90퍼센트 이상 완치

우리나라 사망자 중 매년 6만7천명(전체 사망자의 28퍼센트 ·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암환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암도 조기검진과 예방을 통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막을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께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2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검진 실천 캠페인의 하나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암 검진 권장' 문자메시지 보내기 릴레이 운동을 펼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암 검진 실천 캠페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캠페인은 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암 예방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암은 곧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암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만성질환' '암은 조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때 90퍼센트 이상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암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암 조기검진에 동참하십시오.**

정부는 진작부터 국민들의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암 검진율은 50.7퍼센트에 그치고 있죠.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암 검진율이 70~80퍼센트인 것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까지 암 검진율을 60퍼센트로 높이기 위해 '조기 암 검진 권장'과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퍼센트 대상자에 한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5대 주요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오는 12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가입 암환자 치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경감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완화의료(호스피스)'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완화의료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인 암 예방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암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암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암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불행인 암은 예방만 하면 피할 수 있고, 조기검진만 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에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암 검진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암 조기검진에 동참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암 검진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암 검진을 위해 한 여성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국민 암 예방 수칙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수칙 지키기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부채로 인한 위기가정 돕는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상담에서 자립까지 종합서비스 시동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확대 보강됐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 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연계해 자립을 지원해준다.

지난해 실직 후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태견(49) 씨는 사고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내(45)가 식당 일 등을 하며 월 1백20만원을 벌었지만, 병원비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교육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급전이 필요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해결하거나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갚기는커녕 카드대금까지 밀리기 시작했다.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체에서의 소액대출이 반복됐다.

김 씨가 퇴원 후 재취업을 해서 부부 합산 가계수입이 3백여 만원으로 늘었지만, 빚은 계속 늘어 어느새 5천만원을 넘어섰다.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연체독촉 전화벨 소리에 견디다 못한 김 씨 부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부채상담 클리닉'을 찾았다.

상담을 통해 김 씨 가족의 재무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 달 지출이 5백만원이나 됐다. 대출이자로만 1백50만원이 나갔다. 2억원 가량 하는 집이 있음에도 금융지식이 없었던 김 씨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고금리인 카드와 대부업체 돈을 썼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많았고, 과도한 식비와 통신비 등 가계지출도 방만했다.

이에 상담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 3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해약하며 교육비, 식비, 통신비 등을 과감히 줄일 것을 권유했다. 이를 통해 김 씨 가족은 총 2백19만원의 가계지출을 줄일 수



정경택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원스톱 재무상담 창구가 5월 1일 문을 열었다.

있었다. 석 달이 지난 후 김 씨 부부는 "항상 마이너스였던 통장에 잔액이 남기 시작했다"며 상담소에 감사 전화를 걸어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채클리닉(부채·지출 상담) 서비스가 김 씨처럼 가계 빚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채상담 클리닉 사례 3백 건을 분석한 결과, 가계 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전엔 월평균 소득 1백99만원, 지출 2백73만원으로 74만원의 적자를 보였지만 상담 후에는 지출이 2백14만원으로 59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 적자가 월 7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약 5분의 1로 감소했다.

수지 개선의 주요인은 대환대출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월 1백8만원→월 64만원). 가계부채는 상담 전 5천4백10만원에서 4천73만원으로 1천3백37만원 줄었고, 가계저축은 월평균 3만4천원 늘었다. 무엇보다 방만했던 지출이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융 소외계층 무료 법률 지원도

하지만 부채클리닉은 빚을 탕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도울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나 창업·자활 지원제도와의 연계 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부채클리닉을 통해 부채문제 진단·개선계획을 세워줄 뿐 아니라 금융, 일자리, 창업, 자립 등의 지원과도 연계해주는 '맞춤형 종합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활용해 전환대출·채무 재조정, 개인워크아웃뿐 아니라 재무상담, 자활지원, 마이크로크레디트 창업자금 안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한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채클리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사업을 연계하는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원스톱 재무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신용등급 7~10등급 중에서 3천만원 이하(금리 30퍼센트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는 전환대출을 신청할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 자산·부채 컨설팅, 금융교육 및 사후 모니터링을 해준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회생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도 실시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중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다.

이밖에도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디트 창업자금을 연결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알선해 줌으로써 빈곤 탈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창업자금 지원은 운영자금(2천만원 한도), 점포 임대자금(1억원, 개인은 2천만원)을 연 2퍼센트로 대출해주고,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남점순 서기관은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

글·최호열 기자

새희망네트워크 고객지원센터 1588-1288

22개 식품 탄소배출량 표시

환경부 등서 인증한 제품 첫 출시

환경을 생각한다면 물건을 살 때 탄소성적표지도 살펴보자.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겉면에 생산에서 폐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성적표지(탄소 라벨링)' 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시됐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다.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4월 15일부터 시장에 선보인 탄소성적표지 제품은 11개 업체가 내놓은 22개 제품. 식품으로는 해태 감자칩(이마트 자체상표 상품), 풀무원 유기농두부, CJ 햇반, 연세우유(홈플러스 자체개발 상품), 코카콜라 등이며 내구재는 LG 드럼세탁기, 웅진코웨이 정수기, 경동 나비엔보일러, 리바트 장롱, 현대시트 벽지(이마트 자체상표 상품)가 있다. 서비스로는 아시아나의 김포~하네다 항공서비스가 있다.

내년 저탄소 인증 상품 본격 출시

이와 관련, 4월 15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마틴 유덴 주한 영국대사, 김상일 환경산업기술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증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성적표지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와 함께 '한영 탄소성적표지제도 협력에 관한 협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이는 탄소성적표지 국제협력의 최초 사례로 영국정부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약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탄소성적표지 교육 및 홍보,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 부착 제품에 대한 지원 방법을 찾는 한편, 올해 중으로 저탄소 상품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탄소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저탄소 상품 인증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표시인 탄소성적표지(1차 인증)를 받은 후 제품군별로 국가가 제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부여하는 2차 인증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 등에서 저탄소 상품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박광칠 사무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과 서비스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친환경상품, 녹색상품 등의 막연한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풀무원 유기농두부, LG 드럼세탁기 등 22개 제품이 지난 4월 15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시된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를 달고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제6화
그림 이호
어이
한 잔 할텨?
휙
휙
내가 황어를 잡았구먼! 히히
예?
이 동네 황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어디서 사오셨구먼유.
내가 방금 잡았다니까! 왜 못 믿는겨?
황어(황사리)
잉어목 잉엇과
학명 : Tribolodon taczanowskii
트리볼로돈 타차노프스키
아니, 오는 길에 보가 그리 많은디, 황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유?
자네 어도라고 몰러? 4대강 사업하면서 보마다 다 물고기길을 만들어놨잖여!
!
덕분에 이렇게 봄 가뭄에도 논물 걱정 없고, 황어 떼도 오고 그러는 거 아녀.
황어가 많어유?
말도 말어. 물 반, 고기 반이여. 손만 담가도 그냥 막 잡혀.
아니, 모판들 저리 두고 어딜 가는겨?
지두 얼른 황어 좀 건져 와야 쓰겠구먼유!

미술계의 인디애나 존스, 독립큐레이터 이원일 씨

아시아 비전 장착한 한국 촌놈 세계 미술계 누빈다

2009 프라하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 2010 캐나다 밴쿠버동계올림픽 전시큐레이터를 맡은 이원일 감독. 스스로를 '세계적 촌놈'이라 말하는 그의 뚝심과 정열은 서구 일변도의 세계 미술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원일 큐레이터는 한국성과 세계성을 겸비한 우수한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스필버그, 미술계의 인디애나 존스, 독립투사, 전사, 방랑자…. 이원일(48) 큐레이터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다.

이 큐레이터는 지난 4년 동안 텃세 심한 해외 미술계에서 굵직굵직한 미술관 전시와 국제비엔날레를 10여 차례나 맡았다. 심포지엄과 초청 강연, 심사 등을 맡느라 무려 2백50여 회나 비행기를 탔다. '시차'를 무시한 그의 강행군은 결국 나폴리에서 강연 도중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실려 가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 아찔한 기억을 돌이키며 이 큐레이터는 "이제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한다"고 말했지만, 베이징에서 막 돌아와 기자를 만난 그의 일정은 여전히 살인적이었다.

서구 중심 미학 · 미술사에 거침없는 공격

현재 그는 2009 프라하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2010 캐나다 밴쿠버동계올림픽 기간의 조각비엔날레 큐레이터를 맡았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프라하비엔날레는 세계적 미술 전문지인 이탈리아의 '플래시 아트'가 주관하는 미술 대전이다. 그는 공동 큐레이터 중 한 명으로 한국관을 맡고 있으며, 출품작가 10명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좋은 기회입니다. 한동안 세계 미술계는 아시아 미술을 주목해왔습니다. 아시아 미술 내에서도 한국미술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들은 서구의 미학체계나 학문 바깥에 존재하되 한국성과 세계성이 호환되는 작가들입니다. 거기에 유니크한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야 하죠. 넘버원(No.1)이 아니라 온리 원(Only 1)이 될 수 있는 작가들이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 큐레이터는 서구의 편협하고 오만한 미학체계와 역사를 거침없이 공격해왔다.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때 "당신이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해

말하는 적법성에 대해 말해보라"는 MoMA 관장의 주문에 "당신이 먼저 미국과 유럽이 일방적으로 써온 역사, 즉 미술사에 대한 정당성을 1분 동안 얘기한다면, 나도 아시아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쏘아붙여 그들을 굴복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어찌 보면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음에도, 자신이 '먹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껏 세계 미술계는 서구의 패권주의적인 미술사 기술(記述) 때문에 모순과 불균형이 팽배했죠. 저는 아시아의 큐레이터로서 서구의 편견을 깨뜨리며, 동서의 융합과 미술사의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전 그들의 경험 바깥에서 온 변종 생명체와 같은 존재인 거죠. 왜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후배들과 아름다운 편대비행 하고파

그의 큐레이터관(觀)과 삶의 태도를 아우르는 건 '어항 밖 이론'이다. 물고기는 어항을 떠나면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그는 물고기는 어항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는다고? 천만에. 물고기는 어항 밖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것이고, 나아가 어항 밖 세상에서 살기 위한 호흡법을 깨우칠 것입니다."

그는 한국미술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 혹은 아시아라는 어항에서 벗어나야, 바깥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실체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위대한 한국인이 될 게 아니라 위대한 개인이 되는 게 먼저다. 백남준은 '한국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위대한 아티스트'가 먼저였다"는 논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의 허브'니 '아시아 하이웨이'니 하는 공허한 수사학 대신에 우리나라의 태생적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수사학을 만들어내자고 역설한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시아의 큐레이터로서 서구의 편견을 깨뜨리며, 동서의 융합과 미술사의 복원을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의 경험 바깥에서 온 변종 생명체와 같은 존재다."

5년 전에는 그 또한 '어항 속 물고기'였다.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를 거쳐 서울시립미술관 학예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져서'다. 마침 그때 제4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무작정 떠났고, 독립큐레이터로 첫 발을 뗐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일이 몰려왔다. 2004년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미디어전, 2005년 중국 상하이 젠다이현대미술관 개관전, 2006년 상하이비엔날레, 그리고 세계적인 현대



이원일 큐레이터는 한국이라는 '어항'을 떠나 세계에서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미술관인 독일 ZKM미술관의 'Thermocline of Art—아시아 현대미술전'의 공동 큐레이팅. 이곳에서 그는 멘터가 된 페터 바이블 관장을 만났다. 2008 세비야비엔날레 때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원일은 큐레이터계의 스필버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던 바이블 관장은 이 큐레이터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버지다.

현재 이 큐레이터는 스위스 BSI은행 문화재단의 상임 큐레이터로도 일하고 있다. 월 2천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원하는 대로 전시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꿈의 직장'이다. 월급의 대부분을 전시 기획과 항공료에 쏟아붓고 있는 그는 "아시아적 비전을 장착한 채 날아다니는 전투기처럼 살아가겠다"고 했다.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후배들이 양성돼 '아름다운 편대 비행'이 가능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의 가슴에 달린 배지가 눈길을 끌었다. 독일어로 '미술관은 일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씌어 있었다. 그 배지는 '이원일다움'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코레일 無人驛 명예역장 31명 선발에 170여 명 몰려

"역 앞마당에 노란 들꽃 수놓을 거예요"

시골 무인역(無人驛)의 명예역장 31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전국에서 지원자 1백70여 명이 몰려들었다. 1백명만 지원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은 목표를 훌쩍 뛰어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무인역장은 월급 한 푼 없는 무보수 명예직. 그러나 역장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인 60대 퇴직 철도원부터 기차가 좋아 코레일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회사원, 장래 희망이 기관사인 초등학생 등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각자의 사연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원서를 내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코레일은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31개 무인역의 명예역장을 공모했다. 역장도, 역무원도 없는 전국 1백66개 무인역 가운데 문화재로 등록된 3개 무인역(정차하지 않음)과 열차가 정차하는 28개 무인역 등 31개 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고 한다.

33년간 철도 역무원으로 일하다 8년 전에 퇴직한 채해석(65·전북 익산시) 씨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했다고 한다. 그는 "철도 덕분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철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채 씨에게는 한 가지 미련이 있었다. 그는 "한평생 철도에 몸담았지만 역장을 못 해봤다"며 "명예역장이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코레일은 직원없이 운영되고 있는 31개 간이역에 명예역장을 공모했다.

최연소 지원자인 이청록(12·대구 관문초교 6년) 군은 "기차 타는 것을 좋아해 엄마를 졸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열차를 탄다"며 "기차 모형을 만드는 것이 취미고, 장래 희망은 기관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경기 신망리역에 지원한 김종우(27·회사원·경기 동두천시) 씨는 코레일 '재수생'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코레일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떨어졌다"면서 "그 아쉬움 때문에 명예역장에 지원했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이장님'도 원서를 냈다. 심노석(74) 이장은 "어렸을 적 평촌역 공사할 때부터 70년 넘게 역을 지켜봐서 애정이 많이 간다"며 "매일같이 찾아가 성심껏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수 봉사 1년 임기… 부산 수영·경기 탄현역 인기

전남 보성군 명봉역에 지원한 김문희(22·여) 씨는 "내가 역장이 되면 역 앞마당을 노란 들꽃이 가득한 꽃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전국의 역장은 3백30여 명. 코레일 역운영팀 김기로(38) 차장은 "보통 코레일에 공채로 입사해 최소한 15~20년 정도 지나야 역장이 될 수 있다"며 "전체 직원 1백명 중 1명꼴로 역장이 될 수 있어 선망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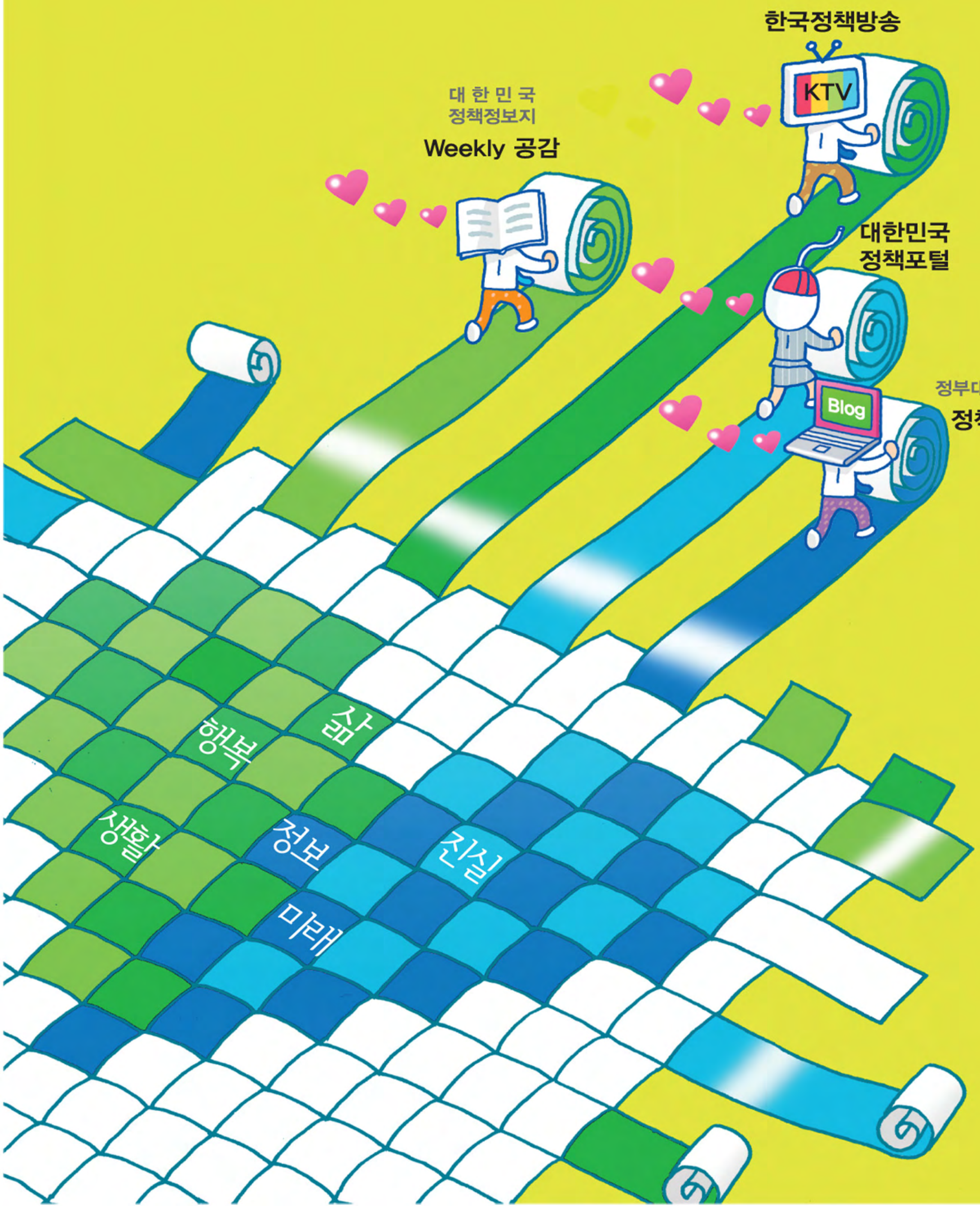
31개 무인역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역은 부산의 수영역(15명 지원)과 경기 탄현역(13명 지원)이다. 두 역은 부산 도심과 수도권에서 가까운 역이다.

명예역장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5월 14일 선발된다. 역장에게는 제복과 신분증, 명함이 지급된다. 또 역 맞이방(대합실)에 역장의 액자 사진과 프로필이 걸린다. 임기는 1년이지만 최장 3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역장은 주기적으로 역에 들러 역사 주변 환경 정리와 시설물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코레일 조형익(48) 역운영팀장은 "앞으로 검토를 거쳐 나머지 무인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명예역장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순찬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Korea.kr
www.korea.kr

KTV
www.ktv.go.kr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 세계요트대회 개최하는 경기 화성

전곡항, 하얀 돛 파란 낭만 펼친다

경기 화성시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레저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는 6월 세계요트대회가 열리는 전곡항을 중심으로 레저와 관광, 산업이 집적된 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은 요트들이 드나드는 레저 항구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통된 탄도~송산 신설도로 덕택에 화성시 전곡항 가는 길은 좀 더 빨라졌다. 서울에서 비봉IC를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306번 국도로 빠지면 바로 말끔한 신설도로가 나타난다. 푸른 바다를 누비는 하얀 요트들을 곧 볼 수 있다는 신호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장수IC로 빠져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화방조제 위를 달리는 방법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서울에서 두 시간 반 정도면 전곡항에 도착한다.

낚시꾼들이 즐겨찾는 조그만 어항이었던 전곡항에 요트가 드나들게 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다. 전곡항과 기역자로 마주보고 있는 안산시 탄도항이 수심이 안정된 데다 어선이 적어 '요트하기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요트족들이 꾸준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요트족들에게 전곡항보다는 인근의 탄도항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점차 전곡항이 탄도항을 제치고 수도권 유일의 요트레저항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 '일하는 배(어선)뿐 아니라 노는 배(요트)'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곡항을 근거지로 한 한국크루저요트협회 손병선 홍보이사는 같은 앞바다를 나눠 쓰고 있는 두 항구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지난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제보트쇼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자 탄도항 관할기관인 안산시는 관망만 한 데 비해, 전곡항이 있는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열린 '제1회 경기국제보트

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는 국내외 관광객 35만명이 다녀갔고, 세계 1백여 개국에 중계됐다. 1백 20여 개 외국업체, 1백여 투자자와 바이어들이 참가해 현장에서 6백억 원 규모의 구매를 했고, 2천4백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도 진행됐다. 그야말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한 점도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화장실과 숙박 시설의 부족. 지난해 35만명이 남성 3칸, 여성 3칸의 화장실 한 곳을 나누어 사용했다고 한다.

화성시에서는 작년과 같은 '화장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안산시와 함께 총 40곳(화성시 30곳, 안산시 10곳)의 화장실을 설치했다.

'지난해 해양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 카누·카약 시승, 레이싱 요트 시승 등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두 차례 뭍에서 보수가 필요한 요트의 특성을 고려해 1백 척 이상 수용이 가능한 마리나 시설을 올해 3월 완공했다. 전곡항을 드나들던 요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다.

전곡항 일대 종합 해양레저단지로

작은 부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지역경제과 임재식 씨는 "전봇대 사이에 늘어진 케이블이 요트나 차량에 걸려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 '전봇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를 위해 실내외와 해상에 4만4천 평방미터의 전시면적을 확보했고, 코트라(KOTRA)와 킨텍스(KINTEX)에 홍보와 마케팅을 의뢰, 현재 40개국 4백50개사를 유치했다.

화성시의 이번 대회 개최는 궁극적으로 요트·보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60조원 규모인 세계 조선시장에서 수주량 56퍼센트를 점유한 조선산업의 최강국이지만 50조원 규모의 요트·보트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하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 2012년 전곡항 인근 1백87만 평방미터 부지에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 교육과 판매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중 실사를 마치고 관련 시설을 10월에 착공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제2단계로 숙박과 쇼핑에 필요한 시설도 갖춰 전곡항 일대는 종합 해양레저산업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지난해 6월 열린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세계요트대회 모습.

최영근 화성시장

"바다와 육지를 잇는 최적지"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에다 바다와 육지를 이어 산업과 문화의 부가가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화성입니다."

2005년부터 민선 4기로 화성시를 이끌고 있는 최영근 시장은 "서해에 접한 화성시는 무궁한 비전을 지닌 곳"이라며 "주변에 시설이 없다, 배후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이라고 말했다.

그가 취임 한 이후 화성시는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시작으로, 15만명을 수용하는 운하도시인 송산 그린시티, 3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양복합 산업단지 등 서해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성공은 '서해 블루오션론(論)'의 뇌관이 됐다.

"물론 이곳에서 대회만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곡항에 정박하는 보트와 요트가 늘어나면 관련시설과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전곡항과 인접한 서신면 전곡리와 장외리 일원에 6천억 원을 들여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다음은 숙박과 쇼핑에 필요한 시설들을 들인 뒤 종합 해양레저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 레저와 휴양이 결합된 '테마형 복합리조트' 건설이 목표입니다. 계획된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영화, 음향, 미술, 엔터테인먼트, 신소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오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창업 등용문 '여성창업경진대회'

생생 아이디어로 '나도 여성 CEO'

여성이 가진 우수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미래의 최고경영자(CEO)를 육성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수상자에겐 상금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인 주식회사 베트올의 김정미 대표(사진 오른쪽)가 동물 질병 진단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주식회사 베트올(대표 김정미)은 지난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는 2008년 여성창업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 베트올은 동물 질병 진단키트를 생산하는데 이 제품은 동물의 혈액이나 분비물을 분석하여 동물의 질병 유무를 몇 분 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정확도가 높고 사용법이 간단해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베트올은 만 3년이 안된 신생기업이지만, 세계 80여 개국에 이 제품을 수출해 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 주식회사 리팩21(대표 임효연)은 2007년 여성창업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선반 기능을 가진 조립식 팰릿(Pallet)을 만들어 창업 1년 만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여성사업자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역대 수상자 1백명 가운데 71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수상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3백82억원으로 여성 창업 성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 자격은 사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은 제외된다. 해당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콘텐츠, 게임, 디자인, 캐릭터, 광고 출판, 생명공학, 환경, 식품, 섬유 등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른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30일까지 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www.womanbiz.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6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기술 및 사업 성과, 수익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대상(1명)은 1천만원, 최우수상(2명)은 각 5백만원, 우수상(3명)은 각 3백만원, 장려상(3명)에는 각각 2백만원의 상금을 상장과 함께 수여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 14군데에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자금 신청 때 가산점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출 심사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청약저축에 부금 · 예금 기능 통합

똘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왔다

알뜰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청약통장이다. 하지만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예금은 한두 가지씩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 같은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통합한 청약통장을 국토해양부가 출시했다.

6월 결혼을 앞둔 김정은(26) 씨는 주택 청약상품 가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어느 것을 가입해야 내 집 마련과 재테크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규모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이자율이 낮고 소득공제도 되지 않았다.

그런 김 씨에게 반가운 일이 생겼다. 기존 청약상품의 장점만을 뽑아 만든 새 청약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5월 6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그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면 된다.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 청약저축과 달리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월 2만~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최대 예치한도인 1천5백만원이 찰 때까지는 월 납입금이 50만원을 초과해도 상관없다.

가입 2년 후부터는 금리가 연 4.5퍼센트여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짭짤하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분기별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고, 5년이 경과해도 이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 규모 변경 가능… 기존 상품에서 전환 안돼

기존 청약통장은 처음 가입할 때 청약할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했지만,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처음 청약을 할 때 선택할 수 있어 좀 더 실용적이다. 단, 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2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1순위가 되는데,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해당 평형의 예치금 이상을 예금한 상태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저축 및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는 20세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출시 첫날 2백26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연합



5월 6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부금·예금의 장점만 모은 주택청약상품이다.

중요 정책을 발 빠르게~ '정보와이드 930'

"딱딱한 정책, 말랑말랑하게 전해드려요"

'정보와이드 930'은 시사 이슈나 주요 정책에 대해 발 빠르게, 또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국가 정책홍보 프로그램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정보를 깊이 있게 전하는 '정보와이드 930' 제작진을 만났다.



'정보와이드 930'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정책이 어렵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칙을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정책진단에서 만나보시죠."

시그널 음악과 함께 김민석·선우경 아나운서의 또박또박한 발음이 전해진다. 여기는 KTV 한국정책방송 스튜디오. '정보와이드 930' 제작 작업이 한창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시청자를 만난다.

KTV 간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이드 930'은 국가 정책홍보 프로그램이다. 그날그날의 핵심 정책과 주요 시사 이슈를 국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며, 국가 정책을 알기 쉽게, 생활에 꼭 필요한 소식을 재미있게 전해주는 종합 정책·정보 안내 프로그램이다.

'정보와이드 930'의 주요 프로그램은 그날의 시사 이슈를 짚어보는 '오늘의 정책',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내용을 들어보는 '정책 진단', 기자의 심층 취재가 돋보이는 '현장 포커스',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생활과 정책' 등이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명품 프로젝트', '지금 대한민국'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양념'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양한 정책현장 심층 보도 '특종 아닌 특종'

책임프로듀서인 조대익 PD는 "'정책 진단'은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사회·경제적인 굵직한 현안을 내용 분석뿐 아니라, 대안과 그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안팎의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성격상 '특종 아닌 특종'이 나오는 곳이 '정책 진단'이다. 출연자들이 관련 현안의 실무자들이다 보니 그들의 말 한 마디가 바로 '기삿거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현장 포커스'는 5명의 기자가 번갈아 출연해 경제, 복

지,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소개한다. 장애인 전국체전이나 농업 분야 등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보도물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장 포커스'의 저력이라면 취재력을 바탕으로 한 시리즈물. '4대강 살리기'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연속 기획물로 꼽힌다. 조 PD는 "지난 1월 방송된 '4대강 살리기'는 항공촬영까지 시도해 4대강의 실태와 개발 필요성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선우경 아나운서가 특히 애착을 갖는 프로그램은 '생활과 정책'이다. 그동안 정보가 없어서, 혹은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부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 프로그램을 1년여 진행하다 보니 예전엔 관심도 없었던 정보들을 꿰뚫게 되었다. 유가환급금 제도가 나왔을 땐 '홍보대사'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바빴다"면서 웃는다. 김민석 아나운서는 "임대아파트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서민을 위한 정보를 전할 땐 뿌듯함을 느낀다. 우리 방송을 통해 정책이 어렵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명이 넘는 기자와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정보와이드 930'. 오늘도 제작진은 '딱딱한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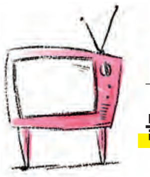
| 프로그램 진행자 김민석 · 선우경 아나운서는? |

"정부 대표 방송 책임 막중해요"


정경택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방송된 '정보와이드 930'의 진행자 선우경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데스크를 지킨 '터줏대감'이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김민석 아나운서에게는 선배인 셈. 그러나 실제는 김민석 아나운서가 선배다. 둘은 11년 전, 경인방송 시절 앵커로 호흡을 맞춘 전력이 있다. '언론인'이다 보니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자리가 불편할 듯도 싶은데, 둘은 아니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비판이 필요한 방송이 있는 반면,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방송도 있다"고 전제한 김 아나운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방송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경 아나운서도 "알기 쉬운 정책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만한 프로그램

내 마음의 고백 | 매주 금요일 20:40~21:20



사회 저명인사와 평범한 시민들이 저마다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고백'이란 형식으로 드러내 상처를 치유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휴먼 토크 프로그램. 문학평론가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의 진솔한 입담으로 진행된다. 5월 15일에는 아내와의 사별로 진정한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송신경정신과 송수식 원장이 출연해 아내가 준 마지막 선물에 관한 고백을 들려준다.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 매주 목요일 17:30~18:20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들의 열정적인 삶과 철학을 통해 '문화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심층 인터뷰는 물론 그들의 소소한 일상과 예술철학을 감각적인 영상에 담아 소개한다. 5월 14일에는 새러 브라이트먼,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뒤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세대 팝페라 가수 로즈 장(Rose Jang)을 만나 부드러운 저음과 힘 있는 고음을 넘나드는 정통 브로드웨이 창법을 구사하는 비법을 들어본다.

KTV 북카페 | 매주 수요일 17:30~18:20



책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하고 올바른 시선을 제공하고, 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며, 한국의 문학적 자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유정아 아나운서(사진)의 진행으로 5월 13일에는 고(故) 권정생 작가의 마지막 동화 <랑랑별 때때롱>을 소개한다. 권 작가의 마지막 집필 투혼과 유언을 소개하고, 고인의 유지를 이어가는 '권정생 어린이재단'과 안동에 있는 작가의 집도 방문한다.



창원마을에서 금계마을로 가는 오르막길.

남원 매동마을~함양 금계마을 지리산길

마음이 먼저 가 반기는 곳 온종일 걸어도 좋겠네

명산 지리산은 높고도 크다. 주봉인 천왕봉(1915미터)을 비롯해 반야봉(1732미터), 노고단(1507미터) 등 해발 1천5백미터 이상의 고봉만도 20개가 넘는다. 이처럼 높고 큰 지리산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등산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수많은 등산객이 분주하게 오르내리는 등산로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제대로 교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안에서는 정작 지리산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앞서 가는 사람들의 등산화와 빼곡한 나무뿐이다. 지리산의 장쾌한 능선과 우람한 자태를 온전히 감상하려면 지리산길에 올라서야 한다. 지리산 자락의 마을과 사람을 만나고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화를 알려면 지리산길을 걸어봐야 한다.

지리산길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장거리 도보길이다. 산길이면서도 수직으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어진다. 정상 정복을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지리산길은 사단법인 '숲길'이 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하나둘씩 개발해나가고 있다. 개발이라고 해서 산을 깎거나 땅을 파고 나무를 잘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부터 주민들이 이용했던 옛길, 고갯길, 숲길, 오솔길, 논두렁길, 마을길 등의 흔적을 되살려 서로 이어줄 뿐이다. 오는 2011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총 3백여 킬로미터의 지리산 둘레를 완벽하게 한 바퀴 도는 순환형 도보길이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조만간 70킬로미터로 늘어나는 지리산길

지난해 4월 제1, 2구간 개통과 함께 처음 열린 지리산길은 2009년 5월 현재까지 3개 구간에 걸쳐 총 30킬로미터가 개통됐다. 5월 하순쯤 함양 세동~산청, 남원 월평~주천 간의 구간이 개통되면 지리산길의 총길이는 약 70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그중 남원 매동~함양 금계 간의 제1구간을 5월의 첫 주말에 한나절 동안 가족과 함께 걸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지리산길 안내센터를 찾았다. 지리산길에 대한 각종 안내자료와 조언도 구하고, 안내센터 앞에 마련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인데 주차장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이미 차들이 들어차 있었다. 제1구간 시작점인 매동마을 마을회관 주변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였다. 그것만 봐도 지리산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매동마을은 마을의 형상이 매화를 닮았대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지리산 능선이 바라보이고, 뒤로는 울창한 대숲과 솔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아늑한 느낌을 준다. 이 마을을 지나는 지리산길은 솔숲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시작되는 비탈길이 끝 간 데 없이 계속되지만, 진한 솔향기를 가득 품은 산들바람 덕에 비탈길의 고단함과 지루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매동마을부터 줄곧 완만하게 고도를 높여온 콘크리트길이 끝날 즈음에 지리산길은 푹신한 흙길로 갈아탄다. 수령이 3백년도 넘었다는 개서어나무 고목도 만나고, 어느새 철쭉 군락지와 숲으로 변한 묵논(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둔 논) 지대를 거쳐 중황마을에 이르기까지 지리산길은 산허리를 타고 수평으로 이어진다. 온종일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은 평탄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웠다.



산내면 중황마을을 지나는 지리산길 옆 주인 없는 주막.

산내면 중황·상황마을의 농로와 논두렁길을 지나는 지리산길은 지리산 쪽으로 시야가 훤히 열려 있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지리산 서북릉의 덕두산(1150미터), 바래봉(1165미터)뿐 아니라 1백여 리의 지리산 주릉까지도 아스라이 보인다. 이처럼 시야가 활달한 것은 크기와 형태가 제각기 다른 다랑이논들이 산 중턱에서 산 아래 큰길까지 수십 층의 계단을 이룬 때문이다.

특히 상황마을 일대 다랑이논은 산내면에서 가장 넓다는 실상사 들녘보다도 많은 소출을 내는 문전옥답이었다. 하지만 한때 이 작은 산촌에 천석꾼도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로만 남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농사짓기가 힘들다 보니 묵논으로 방치되거나 고사리밭으로 탈바꿈한 다랑이논이 적지 않은 탓이다. 그래도 모심기를 앞두고 물이 가득한 다랑이논의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손바닥만한 논에도 봄날의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 녹음 짙어 가는 지리산 연봉이 모두 담겼다.

지리산길은 눈보다는 마음이 즐거운 길이다. 이름난 풍광과 빼어난 절경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끄는 마을과 풍경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지리산길만의 매력이다.

고2 아들과 함께 부산에서 왔다는 중년의 아주머니는 "워낙 산을 좋아해서 지리산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멋진 길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사춘기 소녀처럼 설레고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필자의 큰애도 "이 길 정말 괜찮은데요. 풍경도 좋고 공기도 깨끗해서 몸이 붕 떠오를 것 같아요"라면서 다른 계절에 한 번 더 그 길을 걸어보자고 제안했다.

숲길 돌아서면 웅장한 천왕봉이 눈앞에

마지막 전라도 마을인 상황마을과 첫 경상도 마을인 창원마을 사이에는 해발 7백미터의 등구재가 있다.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는 등구재는 널찍한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두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정을 나누고 혼담도 주고받던 옛길이다. 창원마을 사람들이 근동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는 남원 인월장을 오갈 때도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준령(峻嶺)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만, 지리산길 제1구간에서는 가장 힘든 구간으로 꼽힌다. 그래도 중간쯤에 걸음을 한번 멈추고, 잠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고 나면 단번에 고갯마루에 올라설 수 있다.

등구재 고갯마루를 넘어선 길은 곧게 뻗은 낙엽송 숲길로 이어진다. 숲 터널을 벗어나 등구재 고갯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등구재 너머 쉼터'가 있다. 음료수, 맥주, 막걸리, 라면 등의 요깃거리와 검정콩, 고춧가루, 곶감 같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무인 쉼터다. 주민들이 지리산길을 찾는 여행자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상징하는 곳 같아서 이용자들은 괜스레 한 번 더 자신을 추슬러보게 된다.



등구재에서 금계마을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바라본 지리산.

등구재 내리막길은 곧장 창원마을의 다랑이논길로 이어진다. 사방천지가 온통 첩첩산중인데도, 그 사이사이 층층한 들녘은 의외로 넓다. 주로 논두렁길이거나 다랑이논 사이로 구불거리는 창원마을의 지리산길도 시야가 시원스럽다.

주봉인 천왕봉에서 중봉, 하봉을 거쳐 쑥밭재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창원마을 논두렁길이 끝나는 곳에서 제1구간 종점인 금계마을로 가는 도중에는 다시 조붓한 숲길을 지난다. 시야가 꽉 막힌 숲길을 20여 분 걷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훤해지면서 한층 우람한 자태의 천왕봉이 우뚝하다. 천왕봉에서 흘러내린 칠선계곡의 움푹한 골짜기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지리산길은 눈보다는 마음이 즐거운 길이다. 이름난 풍광과 빼어난 절경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끄는 마을과 풍경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행보다는 걸음이 더디고, 같은 거리라도 시간이 더 걸리게 마련이다. 그게 자연과 인간, 농촌사람과 도시인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지리산길만의 매력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 여행작가



매동마을 위쪽 숲길에서 만나는 개서어나무 고목.

여행 정보

코스 정보 지금까지 개통된 지리산길 구간에는 소박한 이정표와 유도 말뚝, 바닥 페인팅, 리본 등의 표지가 군데군데 놓여 있어 길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초행이라면 지리산 동구인 남원시 인월면 소재지에 자리한 '지리산길 안내센터'(063-635-0850, www.trail.or.kr)부터 들러 지리산길에 관한 상세정보와 안내책자, 지도 등을 구하는 것이 좋다. 지리산길 제1구간 길가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서너 곳의 쉼터가 있는데, 농번기나 평일에는 문을 닫기도 하므로 생수와 간식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숙박 지리산길 제1구간이 지나는 곳에는 매동마을회관(011-524-5325), '꼬부랑길 황토구들한옥'(중황마을, 010-3320-0275), 가온누리펜션(금계마을, 010-2909-1726), 나마스테(금계마을, 011-504-6516) 등의 민박과 펜션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매동마을에도 서성자(011-568-2455), 이길춘(063-636-3549), 이영오(063-636-3505) 등을 포함해 민박집이 20여 곳 있다.

맛집 매동마을과 가까운 산내면 소재지의 유성식당(063-636-3046)과 산내식당(063-636-3734), 함양군 마천면 소재지의 월산식육식당(055-962-5025)에서는 비계가 얇고 육질이 쫄깃하며 고소한 지리산 흑돼지구이를 맛볼 수 있다. 또 인월면 소재지 인월교 부근 두꺼비집(063-636-2979)은 구수하면서도 진한 어탕과 어탕국수 맛이 일품이다. 인월장터 안에 있는 시장식당(063-634-2353)은 잡채 대신 선지만 가득 채운 전라도식 피순대를 직접 만들어 파는 집이다.



유성식당의 순대와 지리산 흑돼지구이.

가는 길 **승용차** 88올림픽고속도로 지리산IC(37번 국지도)→인월교차로(좌회전)→신촌교차로(우회전, 지리산 방면)→인월사거리(직진, 60번 국지도)→지리산길 안내센터

대중교통 제1구간 시작점인 매동마을 앞을 지나는 버스는 30~50분 간격으로 인월버스터미널(063-636-2000)에서 출발. 금계마을에서 인월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 5회(08:00, 10:30, 16:20, 18:50, 19:50) 운행하지만, 3킬로미터 거리의 마천버스터미널(055-962-5017)에서는 약 30분 간격으로 인월행 버스 출발. 택시로는 인월에서 매동마을까지(063-636-2162) 요금이 7천원 선, 금계마을에서 마천까지(055-962-5110)는 4천원 선.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창설

각국 전통악기의 하모니… 新아시아를 열다



일시 6월 4일(목) 오후 7시 30분~8시 45분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2-2029-1720~3(구로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를 5월 31일 창설한다. 2012년 광주에서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이 오케스트라는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연주한다.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간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전 세계에 아시아 문화를 알리려는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이 오케스트라는 6월 1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즈음하여 두 차례 공연을 펼친다. 우선 5월 3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지는 정상회의 기념공연은 오케스트라의 공식 데뷔 무대다. 이날 공연에는 정상회의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다. 대신 6월 4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막을 올린다. 두 공연 모두 오프닝 연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한 빠른 기악곡 합주이며, 피날레는 혼성 합창단이 부르는 '사랑합니다! ASEAN'이라는 대합창곡으로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의 총감독은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오케스트라 합주는 한국 측 연주자 30명과 아세안 연주자 50명이 맡는다. 한국 측 연주자는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구성된다. 예술감독은 최상화 중앙대 교수, 연출은 최치림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담당한다. 국립극장의 무대·음향·조명감독 등도 참여한다. 제주와 서울 각 지역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한국 측 합창단과 아세안 각국의 대표 가수, 전통악기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다.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주무대로 하는 비상근 관현악단으로 운영된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는 특징, 음역, 볼륨, 음색 등을 고려해 음악적 앙상블을 이뤄낼 수 있는 총 56종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시즌마다 각국 위원 추천이나 각국 정부 위촉 방식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매년 3월 '한·아세안 전통음악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당해연도 공연 계획과 악단 편성을 확정한다.

"아시아 고유문화 가치 발견에 일조"

오케스트라 창설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아세안 10개국에서 60여 명의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방한, 2월 28일까지 열린 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한 합동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들은 2월 25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다문화가정 4백여 명을 초청해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 초청 특별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 전에는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서울 구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획단은 이후 구로문화재단과 함께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창설을 준비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당운영협력과 윤도준 주무관은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의 창설은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어를 통해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시아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서구와 다른 아시아 문화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2009년 4월 30일, 토공·주공 통합법안 국회의결
둘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웁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통합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일원화로 주택분양가 인하 등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해외신도시, 토지은행, 녹색뉴딜사업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효율·슬림의 선진경영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1세기 신해양 녹색경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88년 서울 올림픽! 첨단 과학과 IT의 나라로 만든 93년 대전 엑스포!
온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2002년 한·일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는 언제나 우리가 도약하는 기회였습니다
전세계 100여개국, 800여만명의 관람객과 함께 열어가는 4번째 도약의 기회 2012 세계박람회
환경과 경제, 미래가 숨을 쉬는 큰 바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경제가 시작됩니다

큰 바다! 희망의 경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